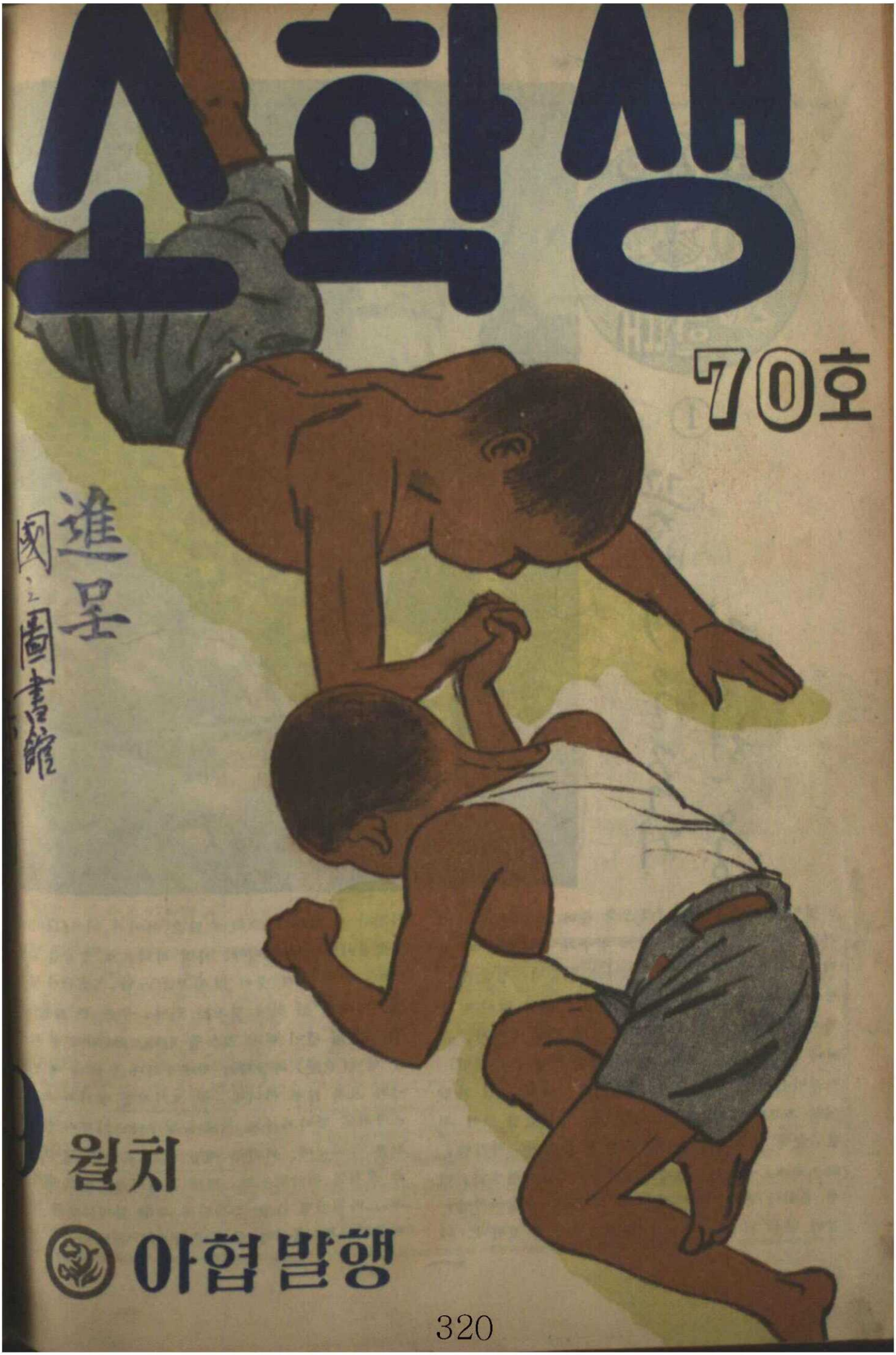
소학생

70호



進呈

國立圖書館

월치

아협발행

① 꽃밭에 물주기

정현웅

멋있는 이층집들이 우뚝우뚝 들러 선 가운데, 다 쓰러져 가는 낡은 집, 어느 친구가 우리집엘 와 보더니, 연극의 무대장치와 같다고 하듯이, 정말 말이 집이지 떼풀어지고 허물어진 곳을, 겨우 버티고 널판지를 아무렇게나 들어 막은 말이 아닌 집이다. 그러나 서울 집들의 흔히 손바닥만한 마당에다 대면, 허전만은 넓은 편이어서, 마당 한 구석에 한평 가량 되는 조그마한 꽃밭을 만들었다. 우리집엘 들어 서면, 눈에 띄우는 것은 이 꽃밭 밖에 없다. 따리야, 코스모스, 봉숭아, 한련, 백일홍, 분꽃, 채송아, 이런 흔하디 흔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꽃들이지만, 집이 하도 허술한 탓으로 유난히 고움게 보인다. 이 사진의 맨 앞에 쪼그리고 앉은 아이가 이석(以石)이 여섯살이고 세째아이다. 아침 저녁으로 꽃밭을 점사하고, 오늘은 새 꽃이 몇개 "났"느니, 조금만 있으면 "터지게"된 것이 몇개니 하며, 무슨 큰 발견이나 한 것처럼 신이 나서 보고를 한다. 그 뒤에 선 이이가 현애(玄愛) 네살짜리 막내둥이다. 나나 제 어머니가 보지 않는 사이에, 꽃 모가지를 잘라서 조그만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놀기가 일수다. 아무리 사실을 해도 무가내다. 여기는 제법 내가 화초에 물이나 주는 것처럼 되어있지만, 대개 저녁에는 늦게 들어가고,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책상 앞에 붙어 앉는 버릇이어서, 좀처럼 물도 주어보지 못했다.

소학생

4282년 9월 1일 발행

70호 9월치

日	月	火	水	木	金	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달의 메모★

9월1일…각학교의 입학식과, 재학년의 개학식. 일본 동경 대진재(서기 1923년) 수만은 일본인 이 우리 동포를 죽인 날.

9월 8일…백로(白露). 미군이 상륙하여 군정을 진 날.(서기 1945년)

9월23일…추분 (秋分=낮과 밤의 길이가 꼭 같아지는 날)

9월27일…영국에서 처음으로 기차를 운전한 날(서기 1826년)

그림 • 한 홍 택

☆차　　례☆

전기소설•김 구 선 생……………이 석표 (4)
소년소설•이름없는별들…………천 인철 (16)
모험소설•모 오 구 리…………작 은동 (36)
소녀소설•새 로운 길…………박 인혜 (48)

동 시•산 길………………………이 원수 (41)
동요•논발으로……………………권 태응 (5)

☆동물교실•고대의 동물…………공 태훈 (24)
☆백두산과 독립군…………………홍 종인 (34)
☆라디오는 어떻게 발명되었나…박 동식 (12)
☆사람과 곤충……………………………(20)
☆과학질문•혈액형과 수혈……과학 계 (32)

애독자 이렴 상타기 문제………………(9)
6월치 애독자 아렴 상타기 발표……(53)

○새공부……………………………윤 태영 (31)
○우리나라 공부…………………조 용만 (19)
○재미있는 수학문제…………………(43)
○우리학교 교가 (부산성남학교)………(15)
○몸을 튼튼히 하는 줄넘기……박 은섭 (46)

화보•즐거운 한때…………………………(2)
만화•아담손 할아버지……………………(55)
만화•피많은 원갈이……………김 용환 (30)
깔깔박사………(29)　척척박사………(53)

동아 협회를 찾아서……………………(44)

요술놀이•볶은 참손 빼내기……………(43)
소학생 구락부……………………………(54)
만들고 나서………………………………(54)

☆ 그림 그리신 분 ☆

정 현웅•임 동은•김 기창
김 의환•이 건영•김 용환
조 병덕•한 홍택•최 수업

1 머 리 말

영국 사람이, 문호(文豪)셱쓰피어를 인도(印度)땅 전부를 주고 바꾸재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지만, 김구 선생님도 우리 겨레에 있어서,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존재이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우리 나라 독립이요…할 것이요, 또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나의 소원은 우리 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하나 밖에는 없다. 내 과거의 칠십 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 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독립이 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칠십 평생에 설움과 부끄러움과 애달픔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 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 우리 독립 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 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왜 그런고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貧賤)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富貴)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김구 선생님의 소원! 이 소원은 곧 삼천만 동포들의 소원인 것이다.

그러나 선생님은 완전히 소원을 못 이루시고 안타깝게 돌아가시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가슴에도 그 소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니, 우리들은 하루바삐 선생님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장래 좋은 일군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왜 그런 소원을 뼈 속 깊이 가지시게 되었나……

그것은 물론 선천적으로 애국심이 강하시었고, 남보다 괴가 괄하신 탓이었겠지만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과 같이, 선생님이 낳으신 전후의 이 나라의 형편이 선생님 같은 애국자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소설의 본 줄거리로 들어 가기 전에 잠간 그 당시 어지럽고 비참했던 이 나라의 형편은 어떠하였나……

그것을 대강 살피기로 하자.

2 대원군(大院君)의 천하(天下)

지금으로부터 백여년 전, 그

니까 김구 선생이 낳으시기 삼십 여년 전이다.

순조(純祖) 때부터 시작된 김씨 일문(金氏一門)의 세도는 헌종(憲宗)을 거쳐 철종(哲宗)대에 이르면서 더욱 극성하여졌다.

임금의 외삼촌 되는 김좌근(金左根)이가 영상(領相)이 되면서, 정부의 세력은 통털어 김씨 일파의 것이 되고 말았다.

제희를 마음대로 세도를 부리고 호강을 하느라고, 정사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지러워 갔다.

돈을 주어 벼슬을 사고, 돈을 받고 벼슬을 파는 것이 보통으로 되었고 노회(賂賄)의 악풍(惡風)이 성행(盛行)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철종이 재위(在位) 십 사년만에 돌아갔다.

단기 4193년, 흥선군(興宣君…나중의 大院君)의 둘째 아드님 고종태황제 (高宗太皇帝)가 나이 열 두살의 어린 몸으로 철종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어린 임금을 도와서 아버지 되는 흥선군이 대원군으로서 정사를 맡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김씨 일문의 정권은 대원군의 손아귀로 들어가고 말았다.

대원군은 외척 김씨의 세력을 물리치고 모든 점을 고치었다.

대원군은 성격이 거세고 용맹과 과단성이 있어서 일하는 것이 빨랐다.

이에 앞서서 헌종 육년에 프랑스 선교사(宣敎師)들이 중국을

동 요

논 밭 으 로

권 태 응

우리 식구 모두다
논밭으로
춥기 전에 곡식 걷기
논밭으로
날만 새면 바빠요
논밭으로

우리 식구 모두 다
논밭으로
삽작문만 달아 놓고
논밭으로
송아지도 어미 따라
논밭으로

그림·임 동 은

거쳐서 몰래 들어와 천주교(天主敎)를 퍼뜨렸기 때문에, 철종 때에 이르러서는 교를 믿는 신도(信徒)가 수만 명에 달하였다.

그 힘은 궁중(宮中)에까지 뻗어 들어 왔던 것이다.

심지어 고종의 유모(乳母) 박씨(朴氏)를 비롯하여, 승지(承旨)벼슬에 있는 남종삼(南鍾三) 홍 봉주(洪鳳周) 같은 사람들도 신도가 되어 있었다.

갑자 (甲子) 년 일월(고종이 즉위한 해의 정월이다.) 어느날, 노서아 군함 한척이 원산(元山)에 들어와 통상(通商)을 하자고 청을 하였다.

대원군은 두 말 않고 그들의 청을 물리쳤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대로 돌아 갔으나, 대원군은 뒷날을 걱정하여 군비(軍備)를 마련하기에 바빴다.

이 때 선교사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천주교를 정부로부터 공공연히 인정 받기 위하여, 대원군을 꺼 살리려 들었다.

그것은 물론 유모 박씨와 남종삼 등을 통하여서다.

수 강대한 노서아는 장차 북쪽으로부터 조선을 침범할 것이 분명하니, 그의 침을 막는데는 강국인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프랑스의 도움을 받으려면 선교사들과 손을 잡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민한 대원군은 반신반의하여, 그들의 동정을 살피니 눈에 거슬리는 점이 적지 않았다.

결국 천주교란 조선 사람의 풍속을 어지럽게 하는 사교(邪敎)로 단정하고, 국법으로써 금할 것을 명령하였다.

뿐만 아니라, 병인(丙寅)2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천주교를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선교사 장 경일(張敬一)과 남 종삼, 홍 봉주 등 수십 여명을 잡아서 처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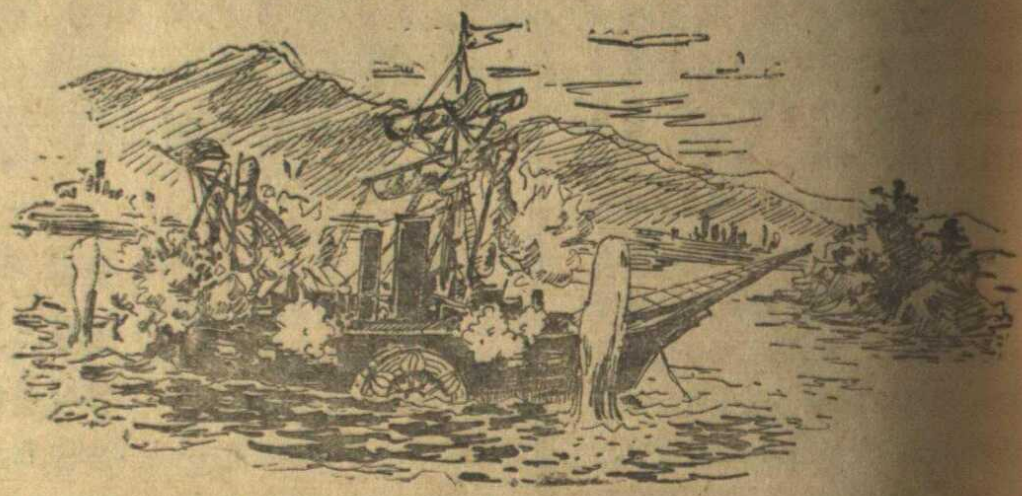
이것을 시초로 하여, 서울과 시골에 있는 천주교도는 거의다 붙잡히어 갇히고 죽고 하였다.

그 수효가 수만명이니 역사상으로 가장 참혹한 비극이었다.

이 일이 있은 후 같은 해 9월 25일—선교사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몇척의 프랑스 군함이 한강으로 들어왔다. 양화진(楊花鎭)이란 곳에 닻을 내리고 서울을 치려 하였으나, 서울의 방비가 튼튼한 것을 알자 대포 몇방만 놓고 도로 물러갔다.

이것이 프랑스 함대의 첫번 내구(來寇)이다.

프랑스 해군제독(海軍提督)로 오제는 첫번 실패를 분하게 생각하다가, 10월 중순경(中旬頃) 다시 대소 군함 일곱 척을 이끌고 강화(江華)로부터 쳐들어왔다.



중요한 요새지대(要塞地帶)인 강화성이 불군(佛軍)에게 함락됨에, 상하(上下)가 눈물 콧물 흘릴 듯 하였다.

벌써 겁을 집어먹은 무리들은, 화의(和議)를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굴복하기를 싫어하는 대원군은 화의론(和議論)을 물리치고, 끝끝내 싸울 것을 명령하였다.

총절 잘 하기로 이름 높은 강계(江界) 포수(砲手…사냥군) 팔백 여명을 동원시켜서, 강화성을 앞 뒤로 반격하니, 드디어 불군도 많은 손해를 입은 채, 군수품(軍需品)을 버리고 물러갔다.

이것이 유명한 병인년의 두번째 프랑스 군함의 내습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역사상 처음 있었던 조선사람과 백인(白人)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다.

승전(勝戰)을 거듭하자, 대원군은 더욱 자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원군은 양이(洋夷…백인을 말함)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의 근이니, 화의를 주장함은 매국(賣國)행위이다…라는 과격한 척화비(斥和碑)를 도처에 세워 서양과의 거래를 아주 막아 버렸다.

이것이 조선의 문화를 뒤떨어지게한 쇄국주의(鎖國主義)의발단이었지만 그 때 정세로는 별안간 외국과 거래하기가 어려웠다. 강화도에서 프랑스 군함을 물리친 즉후, 같은 해 여름이었다.

청국 천진에서 죽고 있는 아메리카의 장삿군들은 벌써부터 조선이 황금국이란 소문을 듣고, 통상을 교섭하여 보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리하여 조선 사람을 혹하게 할 진기(珍奇)한 물품을 쉐어맨호(號)에 가득 싣고 무장(武裝)도 갖춘 다음, 7월 11일에 평양 대동강(大同江)으로 들어왔다.

강화도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쉐어맨호를 보자, 우리 편은 다시 긴장하여 싸움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한 이편의 동정도 모르고 그들은 내로라 하고 방약무인하게 대동강을 오르내리다가, 급기야 우리편의 공격을 받고 전원은 기선과 함께 대동강의 고기밥이 되고 말았다.

고종 8년 신미(辛未) 3월 미국측에서는 이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본에 머물러 있었던 미국의 아세아함대(亞細亞艦隊)로부터 다섯 척의 군함을 조선으로 파견하였다.

미함(美艦)은 드디어 인천으로 들어와서 조선 관헌(官憲)과 회견하기를 청하였다.

조선 정부측에서는 얼른 회견하지 않고, 미함의 동정을 살피면서 방비할 마련을 하기에 열중하였다.

미함측에서는 회답을 기다리는 한편 강화 해협(海峽)의 측량을 하고 있을 때, 먼저 우리편 포대(砲臺)에서 맹렬히 대포를 쏘기 시작하여, 드디어 싸움

은 벌어졌다.

처음 광성진(廣城鎭)이 미군 수중에 들어갔으나, 대원군 독전하에 적군의 진격을 용감히 막았다.

무릇 사십 여일을 승강이를 하다가, 미군은 불리함을 깨닫고 5월 16일 드디어 총총히 물러갔다.

이것이 외국과 세번째의 전쟁이니, 이것을 세상에서 일컬기를 신미양요(辛未洋擾)라 한다.

신미양요를 겪은 후, 대원군은 한층 더 양이 배척의 주장을 굳세게하는 동시에, 철저히 쇄국주의를 단행하였다.

3 민비의 천하

양이를 물리치고 난 후, 대원군의 서슬은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그러나 어찌 뜻하였으랴!… 대원군의 권세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십년을 호령한 대원군의 세도였다.

과연, 십년 세도 없단 말이 들어 맞는지도 몰랐다.

그것은 나이가 들자 왕후 민비는, 시아버지 즉 대원군의 섭정(攝政)을 탐탁히 알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은근히 배척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천(抱川)의 선비 최익현(崔益鉉)을 시키어 대원군의 그릇된 점만 날날이 들추어서 상소하게 한후, 정권을 임금에게 돌리도록 하였다.

뜻밖에 일을 당한 대원군은, 얼른 변명할 여유를 잃고, 하는 수 없이 섭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 때부터 정권은 임금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직접 민비가 붙잡게 되었다.

철종 때와 마찬가지로 세도는 다시금 김씨 대신 민씨 일문의 것이 되고 말았다.

그 당시에는 민씨 성만 가졌으면, 바보 천치라도 벼슬을 얻어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거리에는 이런 말까지 떠돌았다.

—이씨(李氏…임금편)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씨(閔氏…왕비편)의 팔촌이 되라—

이것으로 봐도, 민비의 세력이 얼마큼이나 컸다는 것이 짐작된다.

대원군 시대의 모든 시설은 거의 파괴된 대신, 궁중(宮中)은 요마(妖魔)가 들끓는 수라장(修羅場)이 되고 말았다.

밤 낮을 가리지 않고 뚱땅거리는 장구소리와 노래 소리가 끊지지 않았다. 문자 그대로 놀고 먹자판이었다.

정사는 다시 어지러워졌다.

국고(國庫)는 여지없이 탕진되었다.

겉씨적 이상으로 인민의 고혈을 부지런히 긁어 들였으나, 백관(百官…여러 벼슬아치)의 봉급(俸給)은 오륙년이나 밀리고, 심지어 얼마되지 않은 군병(軍兵)의 요포(料布…월급)를 일년씩이나 주지를 않았다.

그 대신 고관들은 호의스럽게 먹고 지냈다.

이 때 또한 설상가상(雪上加霜)격으로 이런 일이 났었다.

민비는 덮어놓고 대원군의 정책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갔다. 먼저 쇄국주의를 깨뜨리려는 뜻에서, 일본과 거래를 트기 시작하여, 마침내 공사(公使)까지 와 있게 되는 동시에, 군제(軍制)를 개혁한다는 핑계로 월급도 주지 않은 군병 약 일천 명을 파면시켰다.

뿐만 아니라, 대뜸 별기군(別技軍)이라는 신병을 모집하는 한편, 굴본 예조(堀本禮造)라는 까다롭기 짝이 없는 일본인(日本人) 교련관(敎練官)을 두었으므로, 오영(五營)군병들의 불평불만은 자못 커갔다.

임오(壬午)년 6월 9일—

드디어 군병들의 울분은 화약처럼 터졌다.

정부 개혁(改革)의 구호를 외치며, 무기를 들고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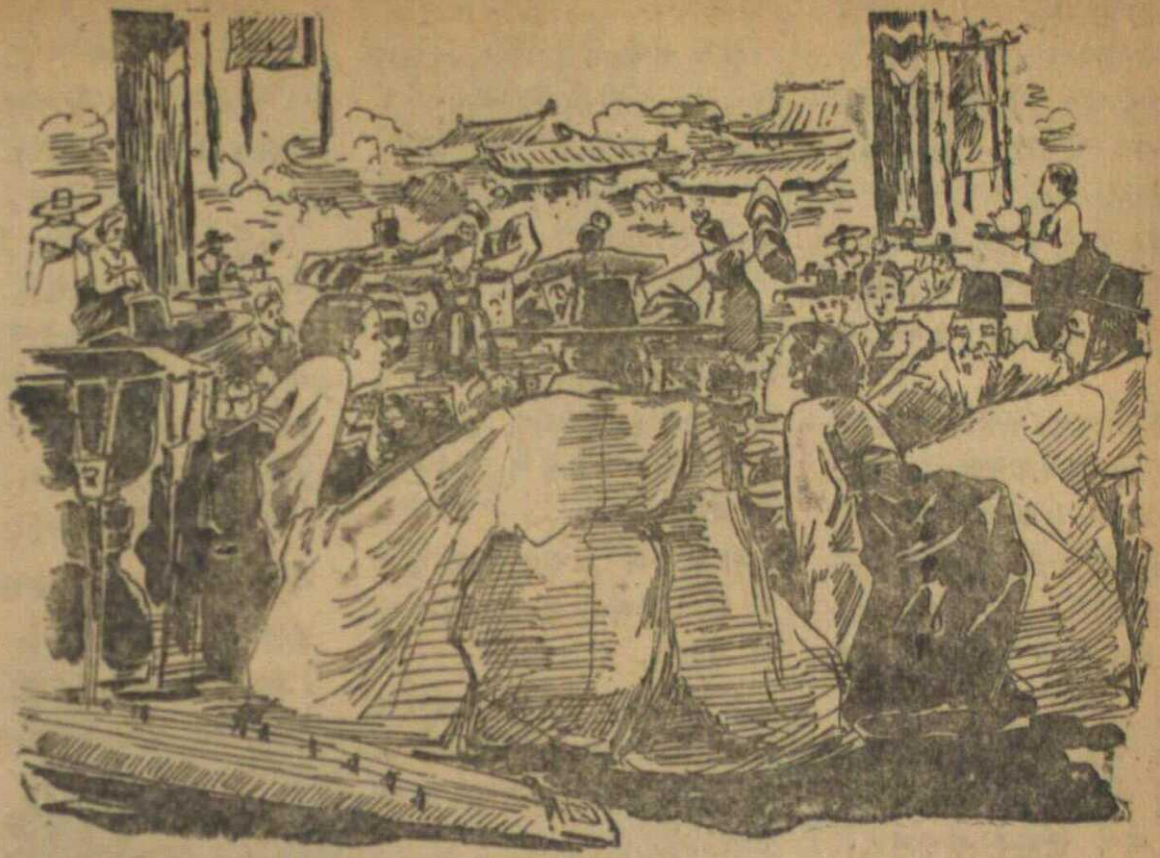
의기 충천(意氣衝天)한 군병들은 천지를 흔드는 아우성 소리와 함께, 두대로 나누어 행동을 개시하였다.

한대는 대궐로—

한대는 훈련원 하도감(訓鍊院 下都監)으로—

대궐로 밀려들어간 군병들은 민씨 일파의 학정(虐政)과 죄악을 꾸짖으며 시위(示威)를 하였다.

이런 사변에 당황한 임금은 은퇴중의 대원군을 청하여 군란



을 견정하게 하였다.

한편 훈련원 하도감으로 달려간 군대는, 가는 길로 신영문(新營門)을 깨뜨리고 영내로 몰려들어가서, 교관 굴본 예초를 죽인 다음, 내뛰는 기세로 서대문 밖 천연정(天然亭)으로 쳐들어갔다.

천연정에는 일본 공사관이 있었다.

군병은 공사관을 습격하여 불을 지르고 일본 거류민(日本居留民)까지 잡아 죽였다.

뜻밖의 봉변을 당한 일본 공사 화방 의질(花房義質)은 몇명의 부하와 간신히 피신하여, 인천을 거쳐 본국으로 도망하였다.

6월 10일 이른 새벽부터, 군병들은 운현궁(雲峴宮)으로 모이어 대원군에게 호소(呼訴)한 다음, 본격적으로 난(亂)을 일으켰다.

다시 대궐로 몰려 들어가서 민씨 일파라면 닥치는대로 죽였다.

눈이 뒤집힌 군병들은, 민비마저 죽이고자 찾았으나, 약바른 민비는 교묘히 궁녀(宮女)로 변장하고 시골로 몸을 피했다.

이것이 유명한 임오군란(壬午軍亂)이다.

4 뻗치는 마수(魔手)들

군란으로 말미암아 서리를 맞고 민씨 일파의 세력은 잠시 꺾

애독자 상타기

★ 문 제 ★

31면에 실린 새교실 문제에서 아래에 적은 번호의 답은 무엇입니까?

1. 8. 11. 13. 20

1등 • 20명——학용품 한벌씩
2등 • 60명——좋은 책 한권씩
마감 • 10월 20일
발표 • "소학생" 11월치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 2가 영보빌딩 아협 "소학생" 편집부
주의 • 학교, 학년, 이름을 똑똑히 쓰십시오.

기어 대원군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다.

그러나 남자 지지않게 비상한 피를 가진 민비는, 우선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임금에게 알리며, 한편 임금으로 하여금 청국(淸國)에 내란평정(內亂平定)의 원병(援兵)을 청하게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망국적(亡國的)인 외국간섭(外國干涉)의 화근(禍根)의 씨가 된 것이다.

야심으로 뭉친 청국의 이 홍장(李鴻章)은, 옳다구나 하고 육군 오천 명을 조선으로 보냈다.

임오 7월 14일 청군(淸軍)이 남양만(南陽灣)에 도착 하였을 때는, 이미 군란은 평정되고, 대원군이 운부신 속도로 만사를 수습 정돈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이미 임금과 민비가 결탁하고, 청국의 세력을 빌어 대원군을 쫓아 내려고 하던 판이라, 군란의 책임을 대원군에게 씌운 후, 간계(奸計)로써 유인하여 대원군을 감금하게 하였다.

청군은 이와같이 일국의 국태공(國太公…大院君)을 국제예의(國際禮儀)를 무시하고 잡아 가둔만큼, 그들의 횡포(橫暴)함은 말할 수 없었다.

저희들 마음대로 조선 군병을 학살(虐殺)하고 군제(軍制)를 함부로 뜯어 고치었다.

뿐만 아니라, 청군에 따라 나온 청국 거류민(居留民)들도, 자칭 대국 사람이라 거만을 부리며, 조선 사람을 깔보고 못살게 굴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은 일본대로 공사관 습격과 거류민 학살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키어, 강경히 정부에 항의하여 왔다.

우둑이 정부는 인천에서 일본과 조약(條約)을 맺고 오만 원의 배상금(賠償金)을 무는 동시에, 공사관 보호라는 명목하에 일병(日兵) 이백여 명을 주둔하게 하였다.

이 때부터 조선은 청국 일본의 외국 군대의 눈치 밑에서 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세가 어지러워 갔을 때 날뛰는 것은 사대당(事大黨)과 탐관오리(貪官汚吏)들 뿐이었다.

이럴 때마다 죽어 나는 것은 죄없는 인민들이다.

정계(政界)의 인물들이란 대개 머리가 캐캐 묵은 사대당의 노축이 아니면, 민비의 족당(族黨)들로서, 그들은 나라나 민족보다 제 몸 하나 편하면 만사는 고만이었다.

그러한 광경을 볼 때, 눈있는 사람은 상을 찡그리고, 뜻있는 사람은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찌 모른다.

이 때 감연히 일어난 우국지사(憂國志士)의 한 무리가 있었다.

김 옥균(金玉均)홍 영식(洪英植)박 영효(朴泳孝)서 재필(徐載弼) 서 광범(徐光範)같은 젊고 똑똑한 인물들이다.

그들은 정부를 개혁할 목적으로 개화당(開化黨)이란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하고, 널리 동지를 구하며 때오기만 기다렸다.

마침내 좋은 기회는 왔다.

갑신(甲申)년 6월에 청국이 불국과 안남(安南)문제로 싸우게 되자, 8월에 청국 함대가 복주(福州)에서 불함의 공격을 받고 격침(擊沈)되었다.

청군이 싸움에 졌다는 소문은 사대당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 때를 타서 젊은 혁명아(革命兒)들은 일을 일으키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해 12월 4일 밤.

서울 전동에 처음으로 낙성된 우정국(郵政局…지금의 체신국) 축하연(祝賀宴)이 벌어진 날이었다.

총판(總辦)홍 영식의 명의로 각국 공사와 사신을 초청하는 동시에, 정부의 대관들도 초대하였다.

이날 계획은 연회 중간을 해서 안국동 별궁(別宮)에 불을 지르면, 으레 대관들이 몰려 나올 것을 예상하고, 별궁 대문 근처에 역사(力士)를 숨겨 두었다가, 일거에 사대당의 대관들을 없애버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사대당의 두목 민 영익(閔泳翊)도 죽이지 못하고 놓치었다.

그러나 한편, 김 옥균 등은 이 소동을 이용하여 꾀를 써서,

고종을 계동궁(桂洞宮)으로 모신 다음, 미리 짬짬이가 있었던 일본 공사 축첨(竹添)에게 통지하여, 일병 일개중대(一個中隊)로써 궁내를 철통 같이 지키게 하였다.

뒤이어 왕명을 발하여, 사대당의 무리들을 예궐(詣闕)하게 하며, 궐내로 들어오는 사대당을 대부분 죽이었다.

이리하여 바람결 같이 날쌔고 빠르게 사대당을 일소한 개화당은 뜻대로 내각을 개조하였으나, 한가지 어려운 문제가 돌발하였다. 즉 청국의 간섭이었다.

사대당이 몰락되고 개화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조선에는 일본의 세력이 커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청국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 때 형편으로는 청병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일병은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다.

일병의 뒤를 봐주는 힘이 없고서야, 개화당도 버티고 나갈 수 없었다.

내각을 구민지 삼일만에 남아 있었던 사대당의 반격을 받아 더러는 잡혀 죽고 김옥균, 서재필 등은 해외로 망명하였다.

이 개화당 사건으로 말미암아 청병과 일병이 잠시 충돌한 것이 원인이 되어 청국과 일본은 천진(天津)에서 회담하고 조선 문제에 관하여 조약을 맺았다.

이 조약에서, 양군은 조선에서 철퇴하기로 약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은 이미 그르쳐지고 만 것이었다.

이 나라의 운명은 마치 중병에 걸린 병자와 같이 앞날이 암담하였다.

제 끈으로 제몸을 얽은 셈이다.

대륙에서는 제정(帝政) 노서아가 넘겨다보는가 하면, 노대국(老大國)청국은 이미 손톱 긴 손을 내어밀었으며 바다 쪽에선 신흥(新興)일본의 매서운 손길이 뻗치어 들어왔다.

어느 것이나 허울은 좋지만 우리에게는 무서운 마수였다.

동족의 세력을 꺾기 위하여 외국의 힘을 이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리석은 일이었나……

바야흐로 삼천 리 강산에 검은 구름은 뭉게뭉게, 산바람은 얕이 감돌고 있다.

이러한 어지러운 시절에 태어나신 김 구선생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얼마마한 고난(苦難)과 싸우셨는지…… (계속)

여러분이 고대하시던 "김 구선생" 은 우선 이달에 그 서두를 소개합니다. 김 구선생께서 파란 많은 혁명가의 일생을 보내시는 거룩하고 눈물겨운 이야기는 다음 10월치부터 실리게 됩니다.

(편집부)

(43페이지 수학장난 해답)

①

15	1	11
5	9	13
7	17	3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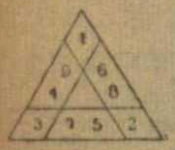
14	0	10
4	8	12
6	1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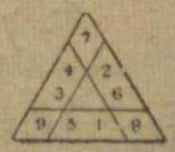
○

5	8	3	2
9			10
4	1	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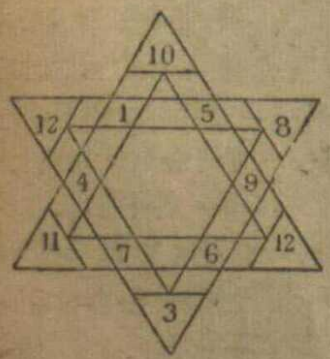
2	3	6	9
8			7
10	5	1	4

④





⑤



발명 이야기 라디오는 어떻게 발명되었나

박 동 식

미국 뉴우욕에 있는 어느 통신사 (通信社) 면회실에서, 뒷굼치가 다 닳아 헐은 구두를 신고, 낡아빠진 모자를 쓴 초라한 청년 하나가, 통신사 지배인 앞에서 무슨 이야기인지 열심으로 말하고 있읍니다.

"저는 무선기사 (無線技師) 데•포레스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내일 하는 보트 경주를 제가 만든 기계로 통신을 하게 해주실 수 없으신지, 여쭈어보러 왔읍니다."

이런 것에 흥미를 가진 이 지배인은, 소개장 하나 없이 찾아온 청년의 무선기계를 대강 조사해 보고 나서,

"그러면 어디 한번 해보시구려, 설비 (設備) 하는데 드는 비용만은 우리 회사에서 내도록 하지요."

이 말을 듣자 청년은 기뻐 날뛰며, 곧 그 길로 경기장 (競技場) 에 가서, 강 가에 수신소(受信所) 를 만들고 배에다 발신장치 (發信裝置) 를 만드는 등, 혼자서 열심으로 준비를 다하고 나서 내일의 시합을 기다린 것입니다. 마침내 그날은 왔읍니다. 서로 자기의 명예, 또는 학교의 명예를 위하여 싸우려고 모여든 보트 선수들이 한 많은 보트는, 나란히 뱃머리를 같이 하여 신호가 나기만 기다리고 있읍니다. 그때 다른 큰 배 속에 타고 있는 데•포레스트는 묵묵히 일어 나더니, 경기 (競技) 전의 모양을 알리기 위한 제 일신 (一信) 을 치기 시작하였읍니다. 기계에서는 빤짝빤짝 불꽃이 날읍니다. 경기가 백열전 (白熱戰) 으로 됨에 따라 그는 윗저고리를 벗어던지고, 와이샤쓰의 팔을 걷어붙이곤 열심으로 키이를 눌러 통신을 계속하여 쳤읍니다. 째깍 째깍 키이를 누르는 소리는, 땀투성이가 되어 열심으로 전신을 치는 데•포레스트와 함께, 경기가 끝나 최후의 막을 닫힐 때까지 계속하였읍니다.

그러고 배가 바닷가에 닿자마자 모래사장으로 뛰어 내린 그는 걸음을 빨리하여 바닷가에 만들어 놓은 수신소로 달려갔읍니다. 그곳에는 어제 그 지배인이 혼자 흥미없는 얼굴로 우두커니 의자에 앉아있을 뿐이었읍니다.

"물론 전부 받으셨겠지요. 팔의 힘이 자라는데까지 키이를 눌러 전신을 쳤으니까요."

"허어! 언제 자네가 타신 (打信)을 했단말인가? 이곳엔 아무 소식도 오지 않았는

겁."

순간, 청년은 무엇인지, 입 속으로 중얼거리며 비틀거리더니, 풍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읍니다. 급보(急報)를 받고 달려온 의사는, 쓰러진 청년을 친절히 진찰한 다음, 영양불량(榮養不良)과 과로(過勞) 때문이라고 말하였읍니다.

"아니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절했을 뿐이지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잡수면 곧 나실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테•포페스트의 첫번 통신은, 보기좋게 실패하고 말았읍니다.

고학생의 큰 희망

이 청년 테•포페스트는 서기 1873년,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났읍니다. 아버지는 목사였으나, 그가 16세 때, 온 집안이 모두 아라바마주로 이사를 하여,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는 흑인교육(黑人敎育)에 일생을 바치었읍니다.

그래서 집안은 의식(衣食)을 겨정하도록 가난하게 되었으나, 흑인을 교화(敎化)이상(理想)에 불타는 아버지는, 아들인 테•포페스트에게도, 또한 자기와 같은 일을 시킬 생각이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 독일 헤루쓰 박사에 의해서 그 실재(實在)가 명백하게 된 전파(電波)의 이야기를 들고는, 총명한 소년의 마음은 벌써 미래의 무선전신과 통화(通話)를 꿈꾼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훌륭한 기술자로 세상에 나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 같이 정성껏 소원을 말하였을 때, 처음에는 한사코 들어주지 아니하시던 아버지로, 그 후, 좀체로 움직일 수 없는 아들의 굳은 결심을 알고서는, 이 뜻을 쾌이 승락하였읍니다.

"테•포페스트야,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끝까지 해보아라. 그러나 우리 집은 아다싶이 의식을 겨정할 정도로 그날그날 살기가 곤난할 지경이다. 학비를 너에게 부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 할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알아라."

"아닙니다. 그것은 안심하십시오. 저는 어떠한 고생이 있더라도 참고 고학을 하여,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훌륭한 성적을 이루겠읍니다."

이리하여 그는 겨우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꿈 정든 고향을 등지고 마사추우센주 고등학교를 거쳐 예일대학으로 들어 갔읍니다. 학교서는 데비생(貸費生) 노릇을 한 까닭에, 학교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나, 날마다 밤중 모든 학생이 다 잘 즈음에 일어나 어려운 수학책을 펴놓고, 세시, 네시까지 또 졸음을 참아가며 맹렬히 공부하였읍니다. 그러다간 책상에 기대어 꾸벅꾸벅 조느라면 벌써 아침이 됩니다. 그는 데비생인 까닭에 날마다 아침이면 식사 준비를 하고 나서 교실로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학교가 끝나면 동무들은 즐겁게 야구나 테니쓰를 하는 동안, 그는 묵묵히 학교 정원의 풀뜯기와 마루 훔치기, 심지어는 변소 소제까지 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는 이렇게 심한 노동과 공부를 사년 동안 계속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마치었읍니다. 그리고 졸업 후 3년째가 4년되던 해, 그는 박사의 칭호(稱號)까지 얻은 것입니다.

이러한 고학을 마치고 겨우 안정되었을 때는, 벌써 영국에서는 마르코니가 고히이라아검파기(檢波器)를 사용해서, 처음으로 무선전신에 빛나는 성공을 하고 있었읍니다.

"아아! 분하게 되었고나. 마르코니는 나보다도 한살 아래인 청년이다. 그 마르코니가 내가 소년시대부터 꿈꾸던 무선전신을 발명하고 말았고나.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껏 내가 좋아하는 연구를 할 여유와 틈이 없었던 것인데, 정말 분한 노릇이다. 음! 이렇게 된바엔 나도 용감한 사나이다. 그것보다 한발자국 더 나아가, 직접 말소리가 들리는 무선전화를 발명하자."

지는 것과 낙담하고 비관하는

① 라디오 발명자 테•포페스트

國立圖書館藏書

것을 모르는 그는, 용감히 일어나 이 대담한 연구에 손을 댄 것입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종래의 검파기입니다. 물론 마르코니는 이것을 연구하여 상당한 개량을 하긴 하였으나, 아직도 불완전하여,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될 곳이 여러 군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검파기의 개량에 일로매진 (一路邁進) 하였읍니다.

드디어 라디오를 발명

서기 1900년도 다 간 어느 날 깊은 밤에, 데•포레스트는 실험용 책상을 까쓰등 아래로 내온 뒤, 계속하여 검파기의 실험을 하였읍니다. 반메터 가량 떨어진 곳에는, 스파아크 (불꽃) 를 발생 (發生) 하는 코이루가 달려 있고, 손 앞에 있는 끈을 잡아 당기면 거기서 톡톡 불꽃이 일어나, 책상 위에있는 검파기에 전파 (電波) 를 보내는 장치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날 밤 데•포레스트는 의외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읍니다. 그것은 그 검파기가 아니라, 머리 위에 켜있는 단 하나의 까스등이, 불이 밝아졌다 어두어졌다 하는 그것입니다. 잘 조사하여 보니, 끈을 잡아 당기어 선륜 (線輪) 에서 불꽃을 뿜을 때마다, 까스등은 어두어지는 것입니다.

"음, 까스의 불꽃이, 전파의 영향을 이같이도 미묘하게 받는줄은 조금도 몰랐다. 이 작용 (作用) 을 검파기에다 응용한다면, 혹 재미나는 결과를 가져올는지도 모르겠군."

뜻 밖에도 그는 하나의 새로운 검파의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의 생활이란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어, 그날 그날의 식사도 못할 지경으로 곤궁했기 때문에, 연구에 소용되는 수화기 (受話器) 를 산다는 것은 도저히 바라지도 못할 노릇이었읍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한쪽 귀에 대는 값싼 수화기를 왼 손에 들고, 오른 손으로 검파기를 다루며, 무릎으로 불꽃의 조절 (調節) 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달 (熱) 은 까쓰를 만들기 위하여, 분젠등 (燈) 을 사용했으나, 이것으론 여러가지 불편이 많고, 실용품 (實用品) 을 만들려면, 암만하여도 전기의 힘으로 달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에 아아크등을 사용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만족할 수는 없었읍니다. 이상 (理想) 으로는 공기를 빼낸 유리관 속에서 휘라멘트 (纖條) 를 백열 (白熱) 시켜, 그 열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분이 있는 백열전구 (白熱電球) 만드는 사람에게, 푸라치남, 탄소, 또는 탄타람 등을 휘라멘트로 하는 진공관 (眞空管) 을 만들어 달래서 잠싯동안은 이것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연구를 거듭하였읍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번에는 아주 훌륭하고 신기한 묘안 (妙案) 이 머리에 떠올랐읍니다.

"제 3 전극 (電極) 을 합하여 전자 (電子) 의 흐름을 어느 정도 막는다면 어찌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나자, 곧 그는 시험삼아 띠 같은 모양을 한 주석종이 (錫箔) 로, 진공관의 거죽을 싸 보았읍니다. 그래도 만족할만큼 못되어, 다음에는 이 제 3 전극을 휘라멘트와 푸레에로와의 사이에다 만들었읍니다. 아아! 이것이야 말로 세계 최초의 삼극 진공관(三極眞空管) 으로, 이것이 있음으로써 무선전화, 라디오방송이 학자의 손으로부터 일반 대중에게 해방된 것입니다. 세계에선 이 발명을 듣고 모두들 깜짝 놀랐읍니다. 이렇게 작은, 손 속에 쥐어질만큼 작은 삼극 진공관은, 차차 차차 지금까지 불가능하던 인류의 희망을 실현시키었읍니다. 그리하여 기어이 데•포레스트는 마르코니의 무선전신에 더 한개 바퀴를 단 무선전화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 후 수 많은 사람들의 연구에 의해서 오늘날과 같은 훌륭한 무선전화도 되고, 또 데•포레스트가 발명한 삼극 진공관의 덕택으로 사람이 없는 선박 (船舶) 의 무선조종(無線操縱) 등, 짐지어는 사

③ 토오키의 필림
화면 (畫面) 귀퉁이에 띠모양으로된 것이 농도 (濃度) 의 변화로서 여러가지소리를 내게 된다.

전 전송(電送) 텔레비전 등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한걸음 나아가 토오키 영화의 완성

어느 날 밤, 그는 고단한 몸을 쉬기 위하여, 가까운 동네 조그마한 극장엘 갔읍니다. 마침 트오마의 영웅 시이사아의 영화를 하고 있어, 시이사아를 죽인 부루다아스로 된 배우가, 손에 든 칼을 들연 칼집에 집어 넣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에 계속하여 두서너 가지 동작이 있은 후, 시간으로 친다면 한 1분쯤 지난 뒤, 겨우 막 뒤 축음기에서

"부루타아스 그대는 그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이것을 말했어야 할 시이사아 그리고 칼을 칼집에 넣어야 할 부루다아스로, 벌써 그자리를 감춘지 오랜 때입니다.

"하하하! 이제면 저렇게도 엘다진 영화가 또 있을까 광고에는 사진과 함께 말도 들린다고 하여 보러 왔더니, 참으로 이렇게 엉터리를 누가 알았나."

왁자지껄 뒤떠들고 있는 관중들 틈에서, 혼자 데•포메스트는 곰곰히 생각에 잠기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저 같이 긴 필림과 축음기를, 서로 똑같이 움직이고 말이 나오도록 돌리기란 참으로 요술군이 아니면 못할 것이야. 이것은 이렇게 하든지 말소리를 필림 속에 한데 집어 넣는 방법을 연구해내지 못하는 한, 완전한 해결은, 못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데•포메스트의 머리에, 번갯불 같이 떠오른 것은 자기가 발명한 그 삼극 진공관입니다.

"그 관을 이용한다면, 배우들이 말하는 것을 빛의 변화로 바꾸어 가지고, 필림에다 박을 수 있을 것이다. 음! 옳지, 거기는 저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이 같이 그는 여러 가지를 정신없이 생각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안되어 그는 필림 한편 귀퉁이에, 소리를 점정과 흰빛의 띠모양으로 새기는 토오키 (發聲映畵) 가 발명된 것입니다. 지금 이 토오키는 무성영화 (無聲映畵) 를 쫓아버리고, 영화는 대개다 발성영화로 되었읍니다. (끝)

우리 학교 교가

부산 성남 국민 학교

성터는 허무러져 자취만 남은
큰일 이룩하신 이땅 남쪽에
우리는 싹터나는 새나라 일군
씩씩하고 힘차게 닦고 또 갈아
성남교 고운 이름 더욱 빛내리

반만년 긴긴 역사 가슴에 사겨
혈맥에 사모치는 조선의 마음
앞으로 무궁하도록 뻗어갈 동산
씩씩하고 힘차게 닦고 또 갈아
이강산 두 어깨에 메고 나가리

아세아의 관문에 물결도 잠잠
태평양 저너머로 서대륙까지
무궁화 긴긴 향기 흘려 보내자
씩씩하고 힘차게 닦고 또 갈아
삼천리 고운 빛을 널리 퍼치리

(김 종 필 지음)

★재 연재 소년 소설★

이름 없는 별들 (1)

정 인 택 · 그림 정 현 웅

제1장 고개 너머 동네 아이들

(1)

산 허리를 끊고 꾸불꾸불 감돌아 내려가는 고개 하나 때문에, 이 동네는 서울이 아니었다.

흔히들 이 고개를 아리랑고개라 부른다.

몇 해 전까지도 이 고개 양옆에 꽉 들어차 있던 솔밭이,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아서, 마루턱에 올라서기만 하면 고개 너머 동네가 희안히 내려다 보였다.

산 기슭으로, 혹은 골짜기를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기와집들이, 서울이 아니라서 더욱 아담스러워 보이는지도 모른다.

품 안에 안길 듯한 동네 모습은 맑고 밝아, 오붓한 멋이 마음에 흡족하다. 동네 한가운데를 꿰뚫고 흐르는 옥같은 개울물.

겹겹이 주위를 에워싼 높고 낮은 산, 산,

먼 산 높은 봉우리엔 흰 구름이 걸려 있어서 곰같이 아름다웠고, 개울 가엔 빨래하는 아가씨들이 끊일 새 없어서 꽃밭같이 항기로웠다. 한여름 대낮 뙤약볕 아래, 고개 너머 동네는 잠자는 듯 고요했다.

"와아, 와아."

모릿군 모양으로 고함을 지르며 숲속 비탈길을 난데없이 내닫는 벌거숭이 한 떼.

고요한 동네의 평화는 이 장난군들의 함성으로 깨어졌다.

"어디루 가까?"

우루루 개울 기까지 몰려 내려온 그들은,

"글쎄, 어디가 좋겠니?"

거기서 발을 멈추고 잠간 망서리는 양이었다.

"저 바위 밑으루 가 거기가 깨끗해."

"그까짓 데, 얕아서 틀렸어."

"애개개, 깊기만 허면 뭘 해. 너 저 아랜아주 흙탕물이다."

"흙탕물이면 어때, 씻으면 되지 않니?"

의논이 분분할 때, 앞에 섰던 한 놈이

"아이 더워!"

하면서 철썩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아이 차거."

"이 자식이..."

그 바람에 물벼락을 맞은 아이들은, 제각기 욕지거리를 하고 나서,

"와아, 와아."

또 고함을 지르며, 뒤를 따라 텀벙 텀벙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울이 흐르도록 새까맣게 탄 알몸뚱이 아이들이, 서로 얼크러져 물을 끼얹으며 가로 세로 뛰었다.

"아야야..."

"아이, 차거."

"이크."

"이게...겁빙지게..."

북한산 밑 아늑한 산 골짜기, 이 근처엔 인가도 드물었다.

(2)

하늘엔 구름 한 점 없다.

바람도 불지 않는다.

이글이글 타는 듯한 햇빛 아래, 나무도 돌도 모두 녹아 없어질 듯 생기를 잃었다.

콸콸콸 바위 사이를 흘러내리는 물소리와, 철벙대고 그 물 속에서 뛰노는 발가숭이들만이

내버려두이는 폭양에도 굴하지 않는다.

"영치기, 영치기."

그중 나이 어린 태진이가 저보다도 큰 돌을 안고 공공댔다.

"아이구 무거워, 아이구 무거워."

그러나, 그 무거운 돌을 안고 다니는게 자랑스러운 듯, 태진이 입 가엔 웃음이 떠 있다.

물 속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둑을 쌓고 있던 종호가,

"인마 그게 뭐야."

허리를 펴면서 핀잔을 주었다.

"인제 돌맹인 고만 두구, 풀좀 뜯아 오렴니까, 고맹인 할 수 없어."

태진이는 들었던 돌을 내버리기도 아까워 절절 매면서,

"아깐 또 큰 돌 가져오레더니……"

참간 쾌루퉁하는 표정을 짓더니,

"예끼, 난 모른다……"

하고는 가슴에 안았던 돌을 풍덩 물 속에다 집어 던졌다.

"이크!"

길이 넘도록 물이 튀고, 물 속에 있던 아이들이 놀라서 화닥닥 튀어나오는 바람에

"아차!"

거의 다 쌓아올린 둑 한 쪽이 털썩 무너지며, 고였던 물이 콸콸 흘러내려가기 시작하였다.

허리까지 찼던 물이 순식간에 다 빠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둑은 반이나 쓸려 내려갔다.

돌을 던진 태진이는 물론이요, 둑을 쌓던 아이들도 모두 얼이 빠진 듯 멍하니 서있을 뿐이다. 이윽고

"요 벵추야."

하면서 종호가 태진이 멱미를 쥐어박았다.

"남 애 쓰구 쌓는걸……자아식두, 도로 쌓 놔!"

"나 때메 그랬어?"

"그럼 누구 때메 그랬어?"

왁자지껄 하는 바람에, 풀 뜯던 아이들도 우루루 다시 모여들면서,

"어떱쇼……"

"누가 무넜어?"

"이런 제에기."

제각기 한마디씩 하고는 종호와 태진이를 번갈아 흘어보며,

소학생은 더달이 나올 적마다 커갑니다. 소학생을 아직 못 본 동무에게 독자가 되기를 권하거나, 돈이 없어 못 사는 동무에게는 빌려 주도록 합시다. 소학생의 독자가 늘면 늘 쑤록 책이 두꺼워 집니다.

제기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이로구나."

아무렇게나 덜씩덜씩 풀발에 가를 주저앉으며 맥이 풀린 모양들이다.

개울을 가로막아 물을 잡아놓고 나서, 헤엄을 치자고 처음 말을 꺼낸 것은 종호였다. 그래서, 돌을 나르고, 모래를 나르고, 여러 아이들이 힘을 합하여 이 공사를 시작한지 한시간이나 넘는다.

애 쓴 보람이 있어, 겨우 둑이 완성되려할 때에, 태진이 실수로 모두가 허사가 되고 만 것이다.

다시 쌓기는 싫었다. 그러나 그대로 단념해 버리기도 어려웠다.

"고마더러 혼자 쌓래!"

한 아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혼자 어떻게 쌓아?"

태진이는 억울한 듯 눈을 흘겼다.

"누가 알어. 니가 무넜으니까, 니가 아까 같이 도로 해놔!"

"왜 내가 무넜어? 너희들이 뛰어나오다가 무넜지."

"에개개, 우리더러 무넜데,요런……"

종호가 기가 막힌 듯 주먹을 쳐들었을 때,

"쥐이……"

별안간 운봉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물줄기를 따라 뛰어내려가며,

"삼태기, 삼태기."

하고 악을 썼다.

"크냐?"

"쥐이."

종호는 들었던 주먹을 내리고, 덥썩 태진이 손을 잡은 후, 쏜 살 같이 먼저 간 아이 뒤를 따라가며,

"빨리 와! 고만두구 우리 고기나 잡어."

그렇게 말했다.

종호와 태진이는 맨손으로도 귀신 같이 고기를 잡았다.

남들은 삼태기나 그물을 가지고도 곧잘 놓쳤지만, 종호와 태진이는 물 속에 손이 들어가기만 하면, 영낙 없이 한마리씩 움켜쥐고 나왔다.

"누가 잡나 내기허까?"

"무슨 내기?"

"저어……"

바위 그늘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고기를 먼저 발견한 것은 태진이다.

"저기 있다, 저깄어."

태진이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조심 조심 발을 들어놓았다.

삼태기를 둘러메고 달려오는 아이, 깡통을 덜그럭이리며 허둥대는 아이……아이들의 흥마는 순식간에 보에서 고기잡이로 옮아가고 말았다. 물 속에서 하는 장난이라면, 아무 것이나 다 재미있고 좋은 그들이다.

(3)

여전히 윗통은 벗은 채로, 종호를 앞세우고 벌거숭이 메둘은, 한 줄로 나란히 비탈길을 내려왔다.

동생을 들쳐 업고 빨래를 지키던 옥순이가 쪼르르 내달으며,

"어디 봐 많이 잡었니?"

종호가 들고 오는 깡통을 들여다 보았다.

"어쩌면…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가재두 잡었구나?"

"가재 한 마리 주까?"

종호는 걸음을 멈추고 깡통 뚜께를 열며, 자랑스러운 듯이 웃어 보였다.

"아이 좋아, 가만 있어, 내 그릇 가져 오께."

옥순이가 개울 가로 내려가는 것을, 다른 아이들은 못본체 하고 그대로 지나치며,

"저건 커단게 기집에 허구만 놀아."

태진이가 빈정대 듯 말하니까

"자아식, 꽤애니 가다 재느라구 그래."

한 아이가 이렇게 받았다. 그 소리에 아이들은 일제히 뒤를 돌아 보고, 깔깔깔깔 한바탕 웃어 제꼈다.

옥순이가 내미는 그릇에다 가재를 한마리 넣어 준 종호는, 이 기맥을 알아 차리고 부리나케 쫓아오며,

"이놈들아, 왜 웃어?"

고함을 지른다.

거기서부터는 평지였다.

금광(金鑛)은 누가 먼저 시작했나?

이 용익(李容翊)씨

조 용 만

우리 나라에서 금광을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나? 물론 옛날에도 조금씩 금을 캐낸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큰 설비와 규모를 가지고 한 사업으로 금을 캐내기 시작한 것은, 누구인고 하니 이 용익(李容翊)이란 분입니다. 이 분은 함경남도(咸南) 명천(明川) 출생으로, 1907년 노령(露領) 해삼위(海蔘威)에서 죽을 때에 환갑이 넘었었다고 하니 지금 살았으면 백살이 넘었을 것입니다.

이 분은 한말(韓末) 정계(政界)에도 유명하던 분으로 금광을 했으니, 돈도 물론 많았었지만 벼슬도 상당히 높아서 내장원경(內藏院卿) 군부대신(軍部大臣)같은 높은 벼슬을 지냈읍니다.

이 분은 키가 여섯자가 넘고 기운이 장사인 쾌남아(快男兒)로 호걸(豪傑)이었답니다. 열여덟 살 때에 벌써 큰 뜻을 품고, 함경남도 갑산(甲山)에 들어가서 금을 캐냈읍니다. 다행히 금이 잘 나와서, 주먹만한 금덩어리를 많이 캐가지고, 등에 걸머지고 서울로 올라왔읍니다. 그 때로 말하면 기차가 있을 리가 만무하니, 순전히 천릿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래 고종황제(高宗皇帝)에게 바치니, 그때는 금이 퍽 귀하던 때라, 고종은 크게 기뻐하셔서, 그에게 벼슬을 주었읍니다.

이렇게 벼슬을 얻은 이 용익은, 고종에게 충성을 극진히 하여, 명성황후(明成皇后)가 충주 장호원(忠州長湖院)으로 피난 하였을 때에, 혼자서 그곳까지 달려가서 황후를 서울로 모시어 왔읍니다. 이 공로 때문에 더욱 고종의 신임이 두터워져서, 여러 곳의 군수(郡守)를 지내고, 필경 군부대신(軍部大臣)까지 오르게 되었읍니다.

군부대신을 했을 때에, 1903년의 노일전쟁(露日戰爭)이 터졌읍니다. 그 해 2월에 이 용익은 서울을 쫓겨서 일본 동경으로 갔읍니다. 당시 친로파(親露派)이던 그를, 서울에 남겨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므로, 일본공사(日本公使) 림권조(林權助)가 그를 허울좋은 일본 시찰이란 이름으로 서울에서 내쫓은 것입니다.

이 용익은 동경에 한 일년 머무는 동안에, 열심으로 일본의 새 문화와 교육 제도를 시찰하고, 서울로 돌아올 때에, 수십만원어치의 책을 사가지고 와서, 보성사(普成社)를 만들고, 보성중학교(普成中學校)를 세웠읍니다. 이 용익은 지금 생각하면 문화상으로도 큰 선각자이었읍니다.

아이들은 힘껏 달리기 시작한다. 쫓기는 것도 아니요, 쫓는것도 아니었다. 뜻하지 않고 경주가 시작된 것이다.

쏜살 같이 돌다리를 건넜다.

바람 같이 자두 밭 모퉁이를 지났다.

태진이가 잠간 발을 멈추더니, 호박 밭 사이로 꼬부라지며,

"종호야, 날 잡으면 용치!"

그러면서 뒷걸음질을 친다. 호박 밭 건너, 산 기슭에 외따로 있는 집이 태진이 집이었다.

종호는 숨이 턱에 닿아 헐떡이리며,

"꼬마야, 어디 내일 보자, 넌 죽을줄 알어."

"왜 내일만 봐, 모레두 불걸."

"조게 까불어."

종호는 키가 큰 대신 좀 싱거운 편이다. 더 대꾸할 말이 없어, 멋 없이 싱끗 웃고는, 주먹을 허공에서 두어번 저어 보인 후에, 이번엔 천천히 걷기 시작하였다.

어느 새 다른 아이들의 모양은 소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종호는 그러나 혼자 떨어진 것이 다행하다는 듯이, 젖은 수건으로 연해 땀을 씻으며 좀 심심했던지 가만히 입 안에서 노래를 불렀다.

자유 그것 아니면 주검을 달라.

자유 그것 아니면 주검을 달라…

왼 편 솔밭 속에서도 뜻하지 않았던 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자유 그것 아니면 주검을 달라…

종호는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자기를 놀리는 줄로만 알았던 것이다.

갑주였다.

눈이 마주쳤다. 종호가 먼저 싱겁게 싱긋 웃었다. 그것이 비굿인 듯 싶었다.

별로 친하지는 않은 사이였다. 그러나 이렇게 외진 길에서 단 둘이 딱 마주치고 보니, 웬 일인지 무척 정답게 여겨졌다.

"많이 잡었니?"

갑주도 그런 생각에서인지, 전에 없이 다정하게 앞으로 다가서며 물었다.

"응."

종호는 고개를 흔들며 광릉을

사람과 곤충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벌레를 보면, "뭐! 벌레."하고 더럽고 귀찮은 것이라고 업신여기고 있지만, 벌레중에는 사람이 좀체로 따라갈 수 없는 놀랄만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읍니다. 첫째로 물건을 끄는 힘에 있어서, 사람은 어른이라도, 자기 몸 무게의 여덟갑절이나 열갑절 정도의 물건을 끄는 것이 한 껏입니다. 그러나 어떤 동물학자(動物學者)가 실험 하느라고, 개미에게 사람이 끄는 구루마처럼 만든 조그만 구루마를 끌리보았더니, 제몸 무게의 1300곱부터 1400곱이나 되는 것을 끌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개미에게 지지 않으려면, 몸 무게가 56키로그람(14관)이 되는 사람이라면, (56 Kg×1300=72800Kg) 즉, 약 73톤의 화차를 끌어야만 하는 셈이 됩니다. 이것으로 보면, 개미보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우에야라는 학자가 딱정벌레를 시험해 보았더니, 1.86그람되는 몸 무게의 딱정벌레가, 56그람이나 되는 무거운 양철 수레를 힘 안들이고 끌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구루마 위에 납덩어리를 조금 실어서 끌리보았더니 84그람의 무게까지 끌고, 3센치메터 밖에 못가고, 그 이상 조금도 움직이질 못했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몸 무게의 45.6곱이나 되는 것을 끌고간 셈이지요. 망발로 또한 몸 무게의 40곱부터 50곱까지의 것을 힘 안들이고 끌 수 있읍니다.

다음에는 가로뛰기 높이뛰기에서도 사람은 벼룩을 당하지 못합니다. 벼룩은 가로뛰기에서, 자기 몸 키의 150곱부터 200곱이나 뛰고, 높이뛰기에서는 100곱 가량 됩니다.

내고이면서,

"혼자, 어디 갔다 오니?"

"애, 참 많이 잡었구나… 으응, 산보 갔다 와… 이거 어디서 잡었니?"

"저어 웃 개천에서… 너 거기 안가봤니?"

"안가봤어. 난 아무 데두 안 가봤어. 이 절 밖에 몰라."

"그럼, 밤낮 집에서 책만 보니?"

"아냐, 저어…"

길주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얼른 딴청을 하였다.

"거기 가면 고기 많으냐?"

"그럼, 많구 말구, 이버덤 더 큰 것두 얼마든지 있어."

"나두 갔으면…"

"내일 같이 가련?"

"내일?"

순간 길주 얼굴에는 말할 수 없이 기쁜 빛이 떠돌았다.

"같이 가까?"

"그래, 같이 가. 태진이두 가구, 운봉이두 가구, 날마다 같이 간다. 너 참 태진이 허구 한 반이지?"

"응."

길주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얀 얼굴에 빨안간 핏기가 돌기 시작한 것은 결코, 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럼, 내 아침 먹구 너의 집으루 가께."

"우리 집 아니?"

두 아이는 솔밭 사이를 나란히 서서 걸으며 동네 쪽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럼 몰라."

"기다리께 꼭 와, 응?"

"그래, 꼭 가께."

남향한 언덕 위, 새로 지은 양옥이 길주네 집이었다.

언덕 밑에서 종호는 돌아선 채 손을 저었다. 길주는 그 뒷모양을 한참 바라보고 있더니,

…자유 그것 아니면 주검을 달라……

소리 높이 노래를 부르며 집을 향하여 달음질쳤다.

해 질 무렵이었으나, 찌는 듯한 더위는 대낮과 다름 없었다.

(4)

제일 먼저 동네 어구 이발소 앞에 당도한 아이는 운봉이었다.

발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아무도 따른 아이가 없

사람이 버룩과 똑같이 하려면, 보통 사람으로, 320메터나 되는 강을, 단번에 뛰어 넘어야만 비교가 됩니다. 높이뛰기에는 160메터 되는 빌딩을 뛰어넘지 못하면, 버룩한테 웃음거리가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높은 빌딩이 우리나라에는 없읍니다.

이와 같이 곤충에는, 힘센 놈도 있고 높이 뛰기 선수들도 있지만, 이밖에 아주 몸이 건강한 것이 많습니다. 루우즈박사는, 곤충이 어느 정도의 추위와 더위에 견뎌 낼 수 있는가를 실험했읍니다. 그 실험에 의하면 사람이면 곧 죽어버릴 만한 더위나 추위 가운데서도, 아무 일 없이 살아 있는 벌레가 많답니다. 다음에는 집을 짓는 것에 있어서도, 훌륭한 건축가(建築家)라도 꿀벌에게는 당할 수 없읍니다. 꿀벌은 아주 적은 재료로 적 커이다란 방을 꾸미며 재료가 튼튼하지도 않은데 집을 단단하게 지을 줄을 알고 있읍니다.

아메리카에는 아주 큰 개미집이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개미들의 빌딩이라고나 할는지? 이것 역시 사람과 개미몸을 키로 비례시켜 보면은, 사람은 18만 메터나 되는 집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개미는, 턱과 발톱만으로 자기집을 만듭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아메리카 뉴요크에 있는 엠파이아 스테이트•빌딩인데, 이것이라도 땅에서 지붕 꼭대기까지 약 380메터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빌딩을 짓는 데도, 여러 가지 기계의 힘을 빌어 세우니까, 개미집과 비교하면 사람은 얼굴도 못들 지경입니다.

동무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람을 비웃고 있는 곤충들이, 많이 이 세상에 있는지 모를 일이 아닙니까? 사람이 잠수함을 만들어 물속을 마음대로 달릴 수 있게 된 것은 근대의 일이지만, 어떤 곤충은 몇 10만년 전부터 안전한 비행기 겸 잠수함 비슷하게, 마음대로 날으고 물 속을 다니고 있는 것이 있읍니다. 하여간 곤충이란 것은, 그 조그마한 몸둥이에 비해서 사람보다 월등 난 재주와 힘을 가진 것이라는 것만은, 이것으로도 알 수 있읍니다.

다. 운봉이는 육상경기 선수였다.

그러던 그렇지 하는 듯이 운봉이는 후우 숨을 돌리고, 걸음을 천천히 하여 마악 골목을 꼬부라지려는데,

"오빠."

하고 옆 가게에서 희봉이가 내달았다.

"너 뭐 샀니?"

희봉이가 가슴에 안고 있는 종이봉지로 운봉이 시선이 먼저 갔다.

"토마토!"

"하나 줘!"

"안돼, 이따가 구경 가서 먹을 걸……"

"무슨 구경?"

운봉이는 구경이란 말에 눈이 번쩍 띄었다.

"학교 마당에서 사진 놀린대."

"표 있니?"

"몰라, 난 한장밖에 없다누…"

희봉이는 해해 웃고, 쪼르르 골목 안으로 달아나 버린다.

운봉이가 마당에 들어서니까, 광영에서 어머니가 고개를 내미시며,

"어디 갔다 인제 오니, 저녁두 안먹구……"

꾸짖 듯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것에는 대답 않고,

"어머니, 표 한장 남었죠?"

운봉이는 불쑥 그런 것을 물었다.

"표가 무슨 표냐?"

"구경표 말예요, 희봉이만 구경 가구 난 못가나 봐……"

"다 커단 녀석이 구경이 무슨 구경이냐. 석모 가라구 했어."

"난 몰라 봐, 석몬 봐두 아무것두 몰르면서 구경은 왜 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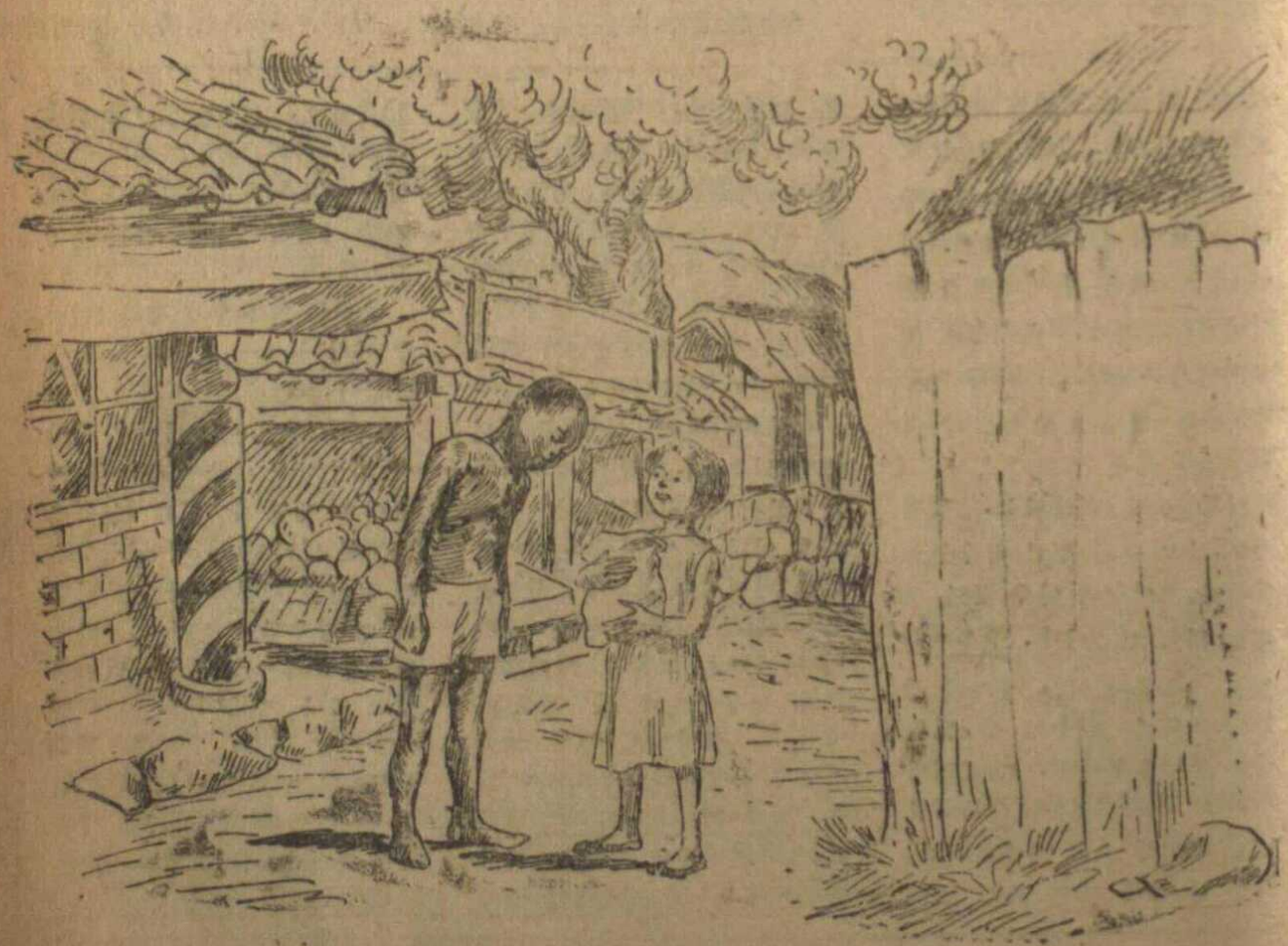
"이녀석아, 너만 사람이라드냐. 너희들은 밤낮 보면서…"

"몰라 몰라, 그럼 희봉이 토인네!"

운봉이는 금방 코우롱해서, 한편으로 비켜선 희봉이에게로 달려들었다.

× ×

제모가치 토마토만 빼앗고 나



서 운봉이는;

"저리 가, 넌 거접애끼리 봐!"

퉁명스럽게 희봉이를 쫓았다.

"오란 아주 간 재리야."

"재리라두 좋아. 보기 싫어 어서 가."

"응응 죽겠지, 난 여기서 볼 껄."

"고만 둬. 니가 안가면 내가 가지."

운봉이는 호느적호느적 그 자리를 떠나 걷기 시작하였다.

아직 아주 어둡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운봉이는 혹시 동무들이나 오지 않았나 해서, 비잉 운동장을 한바퀴 돌았다.

종호하고 태진이가 먼저 와서 맨 앞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종호야."

종호는 힐끔 쳐다를 돌아 보더니,

"혼자 왔니?"

"응."

"이리 와."

"인마 거긴 더워, 저 뒤에서 봐."

"저건 언제든지 제 고집만 부려."

잠간 서로 버티고 움직이지를 않았다. 그러나 운봉이가,

"애, 종호야, 이거……봐."

또 한번 부르고, 토마토가 들은 불룩한 주머니를 툭툭 두드려 보이니까, 종호와 태진이는 얼굴을 맞대고 싱끗 웃더니, 발딱 일어나 운봉이 곁으로 다가왔다.

"그래라. 오늘만 특별히 네 청을 들어 주지."

종호는 운봉이를 따라, 개울쪽 모래밭에가 자리를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안들어 줘두 일 없어."

운봉이가 톡 쏘니까, 이번엔 태진이가 능청스럽게,

"아냐, 들어 줄테야."

하면서 슬그머니 운봉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이 자식이……"

"네 놔, 하하하."

"하하하……"

웃으면서 문득 하늘을 쳐다 보았다.

수 없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느 틈에 어두었는지, 옆에 앉은 동무의 얼굴조차 이미 똑똑히는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영화가 시작되었다.

떠들썩하던 마당 안이 일시에 조용해지고, 부채질 하는 손만이 여기저기서 잔물결 치듯 팔락이었다.

첫째번 만화 영화가 끝나고, 미국 소개하는 문화 영화가 막 시작된 때였다.

별안간 탕 하고, 무슨 대포나 터지는 듯한 요란스런 소리가 학교 전체를 뒤흔들었다.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다음엔 하늘에 닿을 듯한 기세로 흙과 모래와 풀뿌리를 퍼뜨리며 시뻘건 불길이 불끈 솟아 올랐다.

악 소리도 못지르고 운봉이는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땅에 엎드렸다.

와글와글 사람들의 들끓는 소리, 간간이 섞이는 외마딧소리, 의미 없이 와아와아하는 아우성 소리 그런 것들이 꺽 멀리서 들려 오는 것 같이 느끼며 세 아이는 땅에 엎드린 채 일어날 줄을 몰랐다. (계속)

소학생 소년소설특집

★임시 증간★

책이 나으자마자 절판되었는데, 그 후 찾는 분이 많아서 이번에 재판 했읍니다. 두고 두고 몇번 읽어도 재미있는 소설들 뿐입니다. 아직 못보신 분은 빨리 구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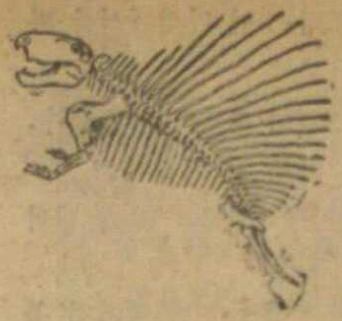
차 례

제 비……정 인택
고 양 이……김 동리
선생님도……김 영수
우시었다
진달래와……김 요섭
고 향
우산 동무……채 규철
비 밀……박 인해
즐거운 메……최 병화
아리
눈뜨는 시……이 원수
절

국판 70페이지 책값 100원

發賣 乙酉文化社

☆ 동 물 교 실 ☆



古代動物 고대의 동물

배재 중학교 공 태 훈

소 개 하 는 말

이 글은, 아메리카 시카고 대학 교수와 화석(化石)박물관 관장이 쓴 "고대의 동물"이라는 책과, 영국의 학스레, 헐스라는 두 생물학자가 쓴 "생물의 과학"이라는 책을 참고 삼아서, 우리가 알아야만 될 것만을 한 둘 추려서, 여러분에게 내놓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아메리카 공보원에서, 그 책을 번역해서 널리 알리면 좋다는 허가도 있어서 번역을 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재미있고 유익한 것만을 한 둘 빼고, 또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대략만을 알리옵니다.

더욱이 우리가 잇과(理科)에서 배우는 동물이나 식물들은, 현재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것 뿐이고, 우리 나라 땅 속에 묻히어있는 그들의 조상들은, 언제 생겨 나왔으며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배우는 기회가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의 자원(資源)이 되는 생물을 바로 알리며는, 그들이 생겨난 그들의 조상부터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메리카, 독일, 영국 같은 외국에서는, 자기 나라 자원을 위해서 화석(化石)을 통하여 예전 생물을 열심으로 연구하고 있읍니다.

우리들도 남에게 지지 않도록 공부해 봅시다.

1 화석(化石)은 어떻게 생겨 나온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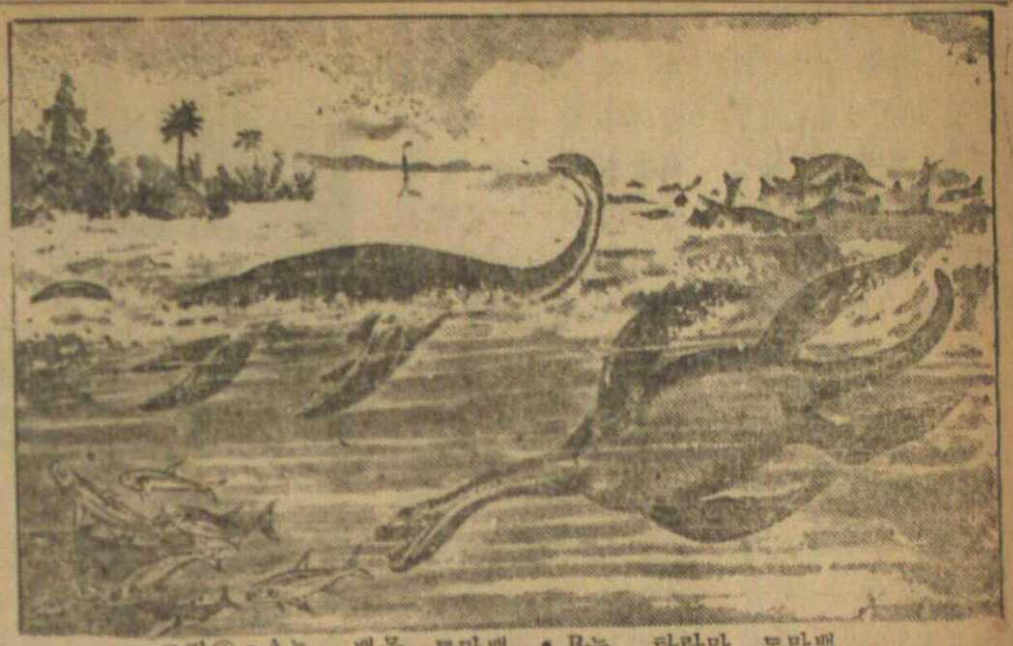
만약 예전의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그 역사를 말하여 줄만한 화석이 땅 속 바윗줄기에서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전 동식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실지로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화석이라는 것은, 먼 옛날의 생물들이 죽어서 남기고 간 흔적인 것입니다. 즉 화석이라는 것은, 예전 동물과 식물들이 죽어서, 모래에 묻히어 굳어진 돌을 캐어 낸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 위에는 아직 사람이라고는 살아 있기도 전에, 땅 위에 살아있던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있는 모오든 것은, 이 화석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화석은 대개 그 생물이 죽은 뒤에 그것이 살아 있을 때와 똑같이 그 온 몸이 남아있도록 파묻히어 된 것입니다.

그림 ① • 범목 도마뱀(蜥蜴目)
(1억 3천만년 전에 살던 짐승인데 그 몸 길이는 3.4메터)

그 예를 들면, 이제로부터 약 1,3000만년 전에는 배마리 짐승(爬虫類)이 바다에서 우세

하게 살고 있었는데,그 중의 하나로서 벰룩 도마뱀을 찾아 봅시다. 이 그림 ①에서 보는 벰룩 도마뱀은,서기 1824년에, 영국에서 캐어 낸것을 처음으로 해서,서기 1893년에는 독일에서도 캐어 냈는데, 그림의 화석은, 독일에서 캐어낸 것입니다.이 벰룩 도마뱀은, 그 긴 목과 꼬리는 현재 우리가 보는 뱀하고 같으나, 고래나 물범 같은 키(鰭)모양의 네다리를 가지고 바닷속을 마음대로 헤엄쳐서 다니었읍니다. (그림③)이 동물은,그 긴 목을 마치 뱀과 같이 휘지으며,바다의 물고기 문어, 낙지 같은 것을 마음대로 잡아 먹었으며, 때로는 물범과 같이 햇볕을 쪼이기 위해서 육지로 나오기도 하였읍니다. 물론 이제로부터 13,000만년 전에는,현재의 열대지방보다도 더 더웠읍니다. 햇볕이 쨍쨍 나고 비도 자주 내려서 수풀이 울창하였으나, 아직 풀은 나지 않았읍니다.그래서 이 벰룩 도마뱀이 먹을 것이라고는, 육지보다 물 속에 더많이 있었기 때문에, 흔히 물에서 많이 활동



그림④ • A는 벰룩 도마뱀 • B는 타라마 도마뱀

하였읍니다. 그러나 알(卵)은 육지에 나와서 낳았읍니다.

그러다가 그 거창한 짐승들이 해변가를 헤매이다가, 그 진흙탕에 빠져버리거나, 또는 바다가 육지로 변해서,그 물이 죽은 다음에는 모래나 진흙이 그 위를 덮어서, 그것이 한겹 두겹 연대가 지나감에 따라, 굳어져서 바위가 되어, 그 짐승은 처음 모양 그대로 화석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화석은 대개로 다만 동물의 몸의 딱딱한 부분, 즉 그 껍질이나 뼈로만 된 것이 많읍니다. 그것은 동물 몸의 물렁물렁한 부분은, 언제나 보통 빨리 썩어 없어지지만, 딱딱한 부분은 늘 비교적 오래 남아 있는 까닭입니다.

그 딱딱한 부분, 즉 뼈 같은 것은, 그대로 굳어서 돌이 되어 화석으로되는데,가령 그 뼈가 땅 속에 묻히면, 땅 속에 스며 있는 물이 그 물렁물렁한 살과 내장을 조금씩 조금씩 썩혀 없애고, 그곳에는 석회(石灰)같은 광물성 물질(鑛物性物質) 만이 남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뼈의 성분은 하나도 남지 않고, 그 대신 돌의 뼈, 즉 돌로 변한 뼈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대개 아시는 바와 같이,오늘날의 육지는, 예전에는 거의 다 물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암(砂岩)이나 석회암(石灰岩)혹은 혈암(頁岩) 같은 바위의 켜(成層)는, 물에 의해서 생긴 바위지만,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바위의 켜는, 지나간 시대의 생물에 관해서 많은 화석을 보여주고 있읍니다.

그림으로 나타나있지 않아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화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약 2만년 전에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던 배미리 짐승이 죽어서,화석으로 된 뼈를 모아서 판 해골이 있읍니다. 이것을 보면 그 동물은, 등 위에 괴상한 돛(帆)을 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그림 3을 보십시오. 무슨 짐승인지 여러분 아시겠읍니까? 이것은 과학자가 해골을 보고, 그 모양은 반드시 이러했으리라고 믿는바를 그린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날의 수 많은 동물 식물을 알아야 할 것이며, 또 화석을 보고서, 옛 동물 식물의 그 예전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림④ • 천둥 도마뱀 (해룡)
(몸 무게 40톤 몸 길이 22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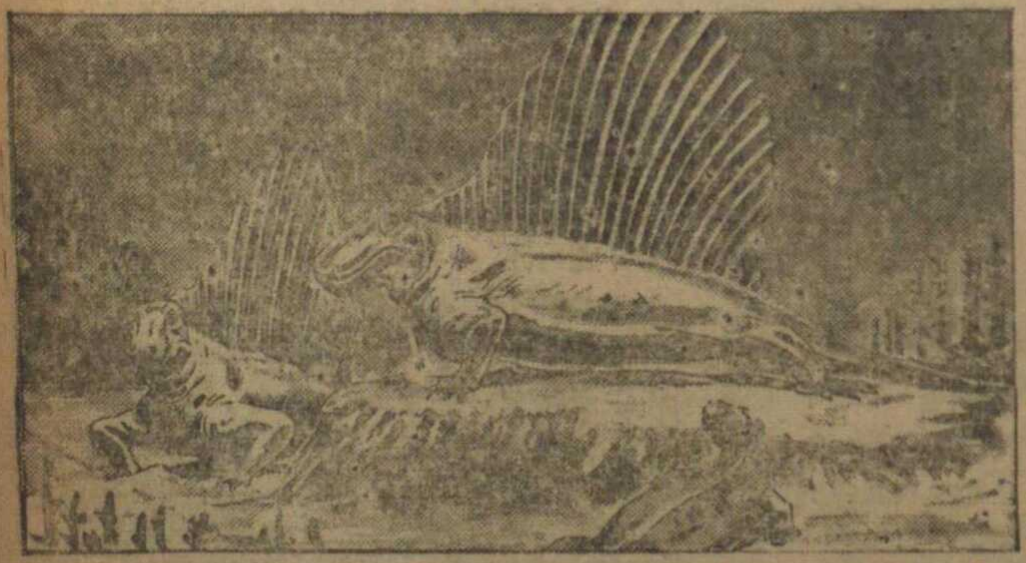
2 사람이 살기 전에 이 지구 위에는 무슨 짐승들이 살고 있었나?

이 지구 위에 무슨 생물이 어떻게 살아있었을까 하고, 여러분은 생각해 본 일이 있읍니까?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은, 태양이나 달이나 혹은 별들을 멀리 쳐다 보면서 아득한 공중을 헤매이면서 한없는 공상에 빠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언제부터 생겨 나왔을까요? 천문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연구한 결과, 이 지구의 나이는 16—30억(億)년 이라고 합니다. 즉 16—30억년 전에 이 지구가 태양에서 튀어 나와서, 처음에는 태양과 같이 불이 붙은 별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차차 식어가지고, 현재의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로 되었다 합니다.

그림 (표지 뒷쪽)을 보십시오. 이제 이 지구가 가령 20억년 전에 생겨났다 하더라도, 화석에 의해서 증명되는 생물(生物)의 생명은, 지구의 나이의 삼분의 일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12억만년 전에는 아직 생물에 관한 화석을 얻지 못했으며, 약 10억년 전에는 유충(蠕虫) 같은 것이 진흙 속에서 살아 있었다는 흔적만은 화석으로 볼 수 있읍니다. (그림왼쪽)이 그림을 보고서 우리는, 맨 처음의 동물은 대단히 간단하였던 것이, 현대에 올쑤록 그 몸이 대단히 복잡하고도 활동할 수 있는, 고등한 동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현재 우리 지구에는 동물과 식물을 합해서 약 62만종이나 되는데, 옛날로 뒷걸음질해 가면 갈쑤록 그 종류는 적어지는 것이어서 옛날에는 몇가지 종류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림③ • 풀대 도마뱀 (2억만년 전에 살던 것으로 몸 길이는 2메터 반)

3 1,3500만년 전에 이 땅 위에 살던 천동 도마뱀(雷龍)의 살림살이

1,3500만년이라 하면, 여러분은 그 동안이 얼마나 긴지 상상하기에 곤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수를 하나 둘씩 세려면,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세수도 하지않고, 쉴새 없이 세더라도, 또 속도를 1초에 하나씩 센다 할찌라도, 300일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그 때에는 바로 베미리 짐승(爬虫類)시대의 중기(中期)일 것입니다. 그 때는 이 지구 위는 햇빛은 찬란하게 비치고, 날씨도 대단히 더웠읍니다. 그 때에는 이 지구 위에는 아직 떡갈나무나 또는 느릅나무. 같이 그 잎이 넓적한 나무라고는 하나도 없었으며, 또 풀도 나지 않았읍니다. 단지 소나무가 있을 뿐이고, 풀이라고는 큰 나무 모양으로 된 이끼종류가 있을 뿐이고, 아직 꽃이 피는 식물은 없었읍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단히 울창하게 퍼져 있었읍니다.

그림④를 보십시오이 짐승은 그 시대에 살던 엄청이 도마뱀(恐龍)의 한 종류인데, 천동 도마뱀(雷龍)이라고 부르는 짐승입니다. 천동 도마뱀 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동물분류학상(動物分類學上)으로 보아서, 오늘날의 악어나 뱀이나 또는 도마뱀과 같이, 베미리 짐승(爬虫類)에 속하는 것이며, 또 그 몸의 뼈가 도마뱀과 같기 때문에 도마뱀이라고 한 것이고, 또 천동이라함은 그 몸집이 크고 뼈가 단단해서, 대단히 무서운 짐승이라고 생각 해서 과학자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아마 그 목소리도, 천동 같이 우렁차고 무서웠을는지도 모르지요.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은 이상한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즉 이제로부터 1,3500만 년 전에는, 우리들 같은 사람은 물론이고, 원숭이 한 마리도 아직 살지 못했고, 따라서 사진기도 없었을터인데, 이 그림 ⑤는 어떻된 것인가요?

그것은 이러합니다. 즉 이 그림은 과학자가 상상해서 그린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못하는 과학자가, 아무 근거 없이 이러한 것을 그렸을까요? 그것을 그리게 된 근거는 이러합니다. 즉 아메리카 와이오밍주 메지성 보강(江)의 북쪽 5마일 지점에서, 1898년에 발견되자, 그 뼈의 하나 하나를 잘 정돈해서 과학관으로 운반해 왔읍니다. 그리고 뼈조각 하나 하나를 잘 셋어서, 제 자리에 맞추어 놓았읍니다. 이렇게 부서진 뼈 조각을 귀중하게 모아서, 이 짐승이 살았을 때와 같이 다시 짜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데는 훌륭한 과학자가 필요하며, 또 여러 조수가 일년이상이나 수고해야만 완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과학자들은 뼈의 조직(組織)을 보고서, 이 짐승은 대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상상할수 있었고, 또 그 뼈의 조직을 보고서, 과학적으로 그 짐승의 생활을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머리뼈는 그 몸집에

그림⑤ • 천동 도마뱀의 생활

비교해서 대단히 적은데, 그 용적(容積)으로 보아서, 뇌(腦)의 무게가 불과 0.5키로그람도 못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짐승은 그리 꼬부리지도 못 했겠지요. 목, 등뼈가 울퉁불퉁한 것은, 그 목에 강한 살이 많이 붙었겠고, 네 다리뼈는 굵어서 그 몸집을 지탱할만큼 기둥같이 되어 있었겠고, 또 꼬리는 길어서 그 긴 목과 한바리 짐으로 되어서, 한편으로 기울지 않았겠읍니다. 또 그 이(齒)를 보면 작고 그 수가 많으니, 아마 큰 짐승은 잡아 먹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즉 육식(肉食)하지도 못하고, 또 굳은 식물도 못 먹었을 것입니다. 세와 같이 미지골이 있어서, 새끼도 못 낳고 알(卵)을 낳았을 것입니다. 설치 그 알도 발견되어 있지만, 이러한 모오든 점을 생각해서, 여러분은 그 천동 도마뱀의 걸 모양을 상상할 수 있겠지요. 그 상상의 그림이 이그림입니다.

이 천동 도마뱀은 백미리 짐승 시대에 있어서, 그 크기로는 물 짐승을 빼놓고는 고급을 통해서, 가장 큰 짐승들 가운데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몸 길이는 20메터, 즉 큰 코끼리를 여덟마리 나란히 서게 한 것보다 조금 더 크겠지요. 그 몸무게는 40톤. 즉 큰 트럭(貨物自動車)으로 이 천동 도마뱀을 한마리 실으려면, 11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거창하게 큰 천동 도마뱀은, 그렇게 몸집이 크고 그 이름도 무섭지마는, 그 뇌(腦)가 작은 것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어리석고 미련할 것 같은데, 그 대신 그는 착하고 순한 짐승이었을 것입니다.

먹는 것이라고는 식물밖엔 없는데, 풀은 아직 없기 때문에 푸른 나뭇 잎이나 물풀을 조금 뜯어 입에 넣고는, 한입 가득하게 물을 물이 키면서 그냥 삼켜 먹었읍니다. 이밖에 또 땅 위에 자라난 작은 속새와 이끼를 뜯어 먹었읍니다.

이 거창한 짐승은, 이와 같이 먹으면서 매우 느리게 이리 저리로 움직여 다닙니다. 그가 그렇지 느리게 움직이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기둥 같은 다리는 대단히 무거울 뿐 더러, 그 길고 긴 꼬리는,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동 도마뱀은 그 거창한 몸둥이를 버둥거리기 위해서, 끌려서 물속에 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천동 도마뱀 같은 백미리 짐승들은, 그 이 전 시대에 있어서 약 1억만 년 동안이나 그 우세한 생활과 번식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뒤에 전부 멸망하였읍니다.

왜?

그 몸집에 비해서 우스울만큼 뇌가 작기 때문에, 이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모오든 변화에 대하여, 이겨 나아갈만한 창조의 힘(創造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少年 少女에게 드리는 여름의 선물!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고 유익한 책!

★이 춘 선 생 지 음★

미담 소설 어린등대수

四六判 美本 그림 二十餘葉入 값 250圓

★서울 白 樹 社 刊★

서울 시골 유명한 책사에서 팝니다!

★아협 책들★

린 큰 그림 얘기책 150원

사랑의 학교 소설 특별 300원

웅철이의 모험 장편 동화 130원

황금 거위 소년 동화 140원

나비의 꿈 소화 특별 140원

★ 제일 좋은것

어머니…아룬아, 오늘은 네 생일날이니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사주마.

이룬이…어떻게 그럼…

어머니…아니 왜 그러니?

이룬이…난 어머니가 제일 좋은데 어머니를 사나요?

어머니…? (서울 청계교 3의3 신 정광)

★학 교

새로 입학한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선생님…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 이것을 합하면 몇 이나 되니?

학생 하나가 책을 싸가지고 교실을 나가려 합니다.

선생님…아니 너 어딜 가니?

학생…선생님! 나는 학교에 선생님한테서 배우러 왔어요. 그런데 모리이 물어보시니까 가지 뭐해요. (서울 숭례교 6의2 이 봉림)

☆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 한단 말이냐? 아메리카의 조오지 워싱톤은 너댓때 벌써 글장노릇을 하고 유명했단다.

아들…호호! 그런가요. 아버지 나이때는 대통령을 했답니다.

아버지…? (서울 효제교 3의8 고 기풍)

★천 당

선생님…공부 잘하고 어른의 말 잘 듣고, 또 착한 사람이면 천당에 간단다.

개똥이…선생님. 그럼 만당도 있나요? 저는 만당 가겠어요. 만당은 천당보다 인감절이나 되니까 더 좋을꺼에요.

선생님…?

(서울 서대문교 4의3 김 승영)

☆걱 정

수남이…몸이 퍽약하구나.

수동이…너무 걱정을 하니까 그래.

수남이…무슨 걱정?

수동이…몸이 약해서 걱정을 하지…

(서울 효제교 4의8 고 기풍)

★시 험

선생님…너희들 열의 사람 것 보고 쓰면 안된다. 알았니?

생도들…네.

그런데 어떤 한 아이 손을 번쩍 들고,

생도…선생님! 그럼 둘 사람 것은 봐도 괜찮아요?

선생님…?

(서울 공덕교 5의3 이 종국)

아 협 ★ 책 돌

정전 만화 소설

피노치오

디즈니 그림 • 작은돌글

소학생에 연재되어 20만독자의 귀여움을 받던 피노치오가 예쁜책이되어 나왔읍니다 아슬아슬하고 섹섹한 데 모험소설입니다. 정정이 그림 이불이있는 호화판!

책값 140원

중학교 들기 위한

소년 상식

1000 문답집

이 책이 얼마나 값있는 책인가하면, 금년도 중학교 입학시험에 상식에 관한 문제는 대개 이책에 나온 문제범위 안에서 난것만 보아도 알수있읍니다. 웃학교 가실분이나 우등생이 되려면 반드시 이책을 보아 두어야 합니다.

책값 140원

조복성 지음

곤충 이야기

과학공부에서 기초가되는 동물이야기, 그 동물에서도 가장 중요한 곤충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곤충들의 세계를 이처럼 재미있게 쓴 책은없었읍니다. 그림과 사진이 가득 들어 있어서, 과학을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책입니다.

책값 140원

책사에 없을 때엔

서울[illegible]2번82

文 章 閣

으로 주문하시오

새 공부

(지도) 동덕여자 국민 학교

윤 태 영

◇ 머 리 말

가슴이 터져 막히도록 더웁던 여름도 지나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 철이 되었읍니다. 더위에 지친 몸이 튼튼하게 될 때이며, 또 정신도 깨끗하게 되는 좋은 때입니다.

옛 어른의 말에, 가을을 가리켜서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때" 라고 하였읍니다만, 나는 이 말을 바꾸어서 "하늘이 높고 머리 즉 두뇌(頭腦)가 살찌는 때"가 바로 이 가을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기가 좋아서 공부하기 좋은 때에, 쉬지 말고 부즈런히 공부하기로 하십시다.

또 옛말에, 이 가을을 "등불을 가까이 하는 때라" 고도 말하였읍니다. 여러 어린이들도, 옛날의 훌륭한 어른들이 한 것과 같이, 등불 아래로 이책을 들고 가서 재미있게 공부를 하여 봅시다.

공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가장 새로운 방법과 모양을 따라서, 정말로 우리의 실력을 기르도록 힘써야 하겠읍니다. 더욱이 지난 여름부터 중학교의 입학 시험은 전같이 국민학교의 성적표나 소견표를 가지고 가지 않고, 다만 중학교에 가서 실력으로 시험을 보아서 입학 낙제를 정하게 된 까닭에, 실력 없는 사람은 시험에서 성공할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새로운 방법으로 실력을 기르는 공부를 하는 것이, 이곳의 목표입니다.

◇ 문제를 어떻게 풀까?

다음에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풀까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아야 하겠읍니다. 원래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잘 씹어 먹듯이, 평소에 차근차근히 쉬지 말고 하여야만 실력이 붙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각각 문제에 따라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전체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을 말하여 봅니다.

(1)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덮거니 생각하여서는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2) 문제를 대하였을 때에, 허둥대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무엇을 묻는 문제인가를 잘 잡아 내어야 하겠읍니다.

(3)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나중으로 밀고, 먼저 아는 문제부터 하고 모르는 문제를 차차 하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문제 마다 푸는데 필요한 시간을 적었으니 그 시간 안에 하도록 하십시오.

(1) 문 제 (시간 10분)

◎ 문제의 목표

이 문제는 한 가지 문제를 보고 그에 따르는 생각이 나는 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종류에는 한 가지 일로 반대 되는 것이 생각 나는 것과 비슷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서로 가까운 일이 이어 생각나는 그 힘을 알아 보려는 것입니다.

◎ 설 명

다음 보기를 잘 읽고(　　)표 속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답을 쓰시오.

◎ 보 기

지붕……(높다) | 방바닥……(얕다)
산(山)……(크다) | 종……(작다)

(1) 해방 된지……(사 년)
(2) 백인종 사는 곳……(유우럽)
(3) 물건의 소리가 울리는 까닭…(공기의 진동)
(4) 달, 바윗돌, 쇠, 연필……(암체(暗體))
(5)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100도)
(6) 부여(扶餘)에(識)조선(朝鮮)을 일으킨 사람……(예인(識人)또는 부여족)
(7) 서울 종로 화신……(백화점)
(8) 개가 주인을 기뻐하여……(짖다)
(9) 사람이 죽어서……(곡성)
(10) 속셈 654—57—69—51—43—82—48—76=228
(11) 아들, 손자, 증손자……(직손)

(12) 이씨 조선 처음 임금……(이성계)
(13) 1949년……(서기)
(14) 광복절(光復節)……(8월15일)
(15) 세종 대왕의 업적……(훈민정음,천문기계, 용비어천가 같은 여러가지 책, 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제도.)
(16) 독일, 이탈리, 일본……(동맹국)
(17) 속셈

$$\begin{array}{r} 8\ 7.3 \\ 4\ 5.1 \\ 7\ 0.8 \\ 4\ 9.2 \\ +\ 5\ 7.2 \\ \hline 3\ 0\ 9.6 \end{array}$$

(18) 금……(금광)
(19) 병정을 뽑는 것……(징병)
(20) 가슴이……(두근두근)

우리 나라사람이 빙어리 된지……(　　)
황인종 사는 곳……(　　)
물건을 볼 수 있는 까닭……(　　)
해, 전등불, 촛불, 숯불……(　　)
물건이 빛을 내기 시작하는 온도 섭씨(　　도)
삼한(三韓)을 일으킨 사람……(　　)

서울 종로 보신각(普信閣)……(　　)
대한독립 (大韓獨立) 만세를……(　　)
만 세……(　　)
347151—71905—58479—30943—62366
=(　　)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
고조선 처음 임금……(　　)
4282년……(　　)
개천절……(　　)
단군 왕검의 업적(다섯 가지)……(　　)

미국, 쏘련, 영국, 중국, 불란서……(　　)

$$\begin{array}{r} 8\ 0\ 5.1\ 6 \\ 5\ 6\ 5.8\ 7 \\ 9\ 9\ 7.0\ 8 \\ +\ 4\ 2\ 9.2\ 8 \\ \hline \end{array}$$

석 탄……(　　)
전쟁 때문에 일인이 일군을 뽑았던 것(　　)
눈물이……(　　)

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여 보십시오. 이 문제의 대답은 다음달치에 알려드리겠읍니다. (계속)

과학질문

(질문) '혈액형(血液型)과 수혈(輸血)이란 무엇입니까?

(서울시 신설동 최 성 주)

(대답) 요지음 의학계에 많이 쓰이어 귀중한 생명을 그로하여금 건지게 하는 "수혈요법(輸血療法)"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혈액(血液=피)에는 네 가지 틀리는 형(型)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부터 입니다. 사람의 혈액에는 적혈구(赤血球), 백혈구(白血球) 혈청(血清) 섬유소(纖維素)등이 있다는 것은, 과학을 알게된 옛날 시절부터 알고 있었으나, 같은 사람인 이상 피의 성질은 지금 말하는 A형이니 B형이라는 것이 없이, 다 똑같은 것이라고 믿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 1901년 란드•스타이나아라는 학자가, 사람의 혈액에는 일정한 형(型)이 있어 누구나 다 같지 않다는 것을 연구 발표하였읍니다.

그것에 의하면, 사람의 혈액에는 O형, A형, B형, AB형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가운데 어느 한 종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험하려면은 어느 한 사람의 혈액에서 혈청을 뽑아 이것을 유리관 위에 놓고, 다시 또 다른 한 사람의 혈액을 뽑아 그 속에 섞어서 흔들어 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혈액이 합하여, 콩모양 엉기는 경우와, 그대로 엉기지 않는 경우가 있읍니다. 앞의 경우와 같이 되는 것은 그 혈액을 합하면 안됩니다. 나중 경우는 같이 합할 수 있는 혈액으로, 즉 실험 예와는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합할 수 있는 혈액형을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O형의 혈액은 O형의 혈액만 합칠 수 있으며,
② A형은 A형과 O형의 혈액과 합칠 수 있으며,
③ B형은 B형과 O형,
④ AB형은 혈액의 어떤 형이든지 합칠 수 있읍니다.

수혈을 하려면은, 먼저 그 사람의 혈액형을 검사한 결과, 그 사람이 A형이면 피를 줄 사람도 A형이나 O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혈방법에는 직접(直接)수혈법과 간접(間接)수혈법의 두가지가 있읍니다. 직접 수혈법은 병자의 혈관(血管)과 건강한 사람의 혈관을 자르고, 이것을 직접 연결시켜서 하는 법인데, 이것은 현재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간접 수혈법은 뽑아낸 혈액을 잘 보존하여 두었다가 급한때 이것을 쓰는 것입니다. 원래 혈액은, 섭씨 15도 가량으로 엉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다 약을 넣어, 그릇 속에 공기가 못들어가도록 꼭 막아 냉장고에 넣어두면 3주일 동안은 보존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수혈은 몹시 다쳐 많은 출혈(出血)을 하였을 때.또는 장질부사의 출혈 위궤양의 토혈(吐血) 그밖에 까쁘 중독을 하여 독이 든 피를 버리고 새로운 피를 보급 (補給) 할 때 하는 것입니다. 대략 사람의 몸이 지니고 있는 총혈량(總血量)은 평균 체중(體重)의 약 20.5분지 1입니다. 즉 체중 15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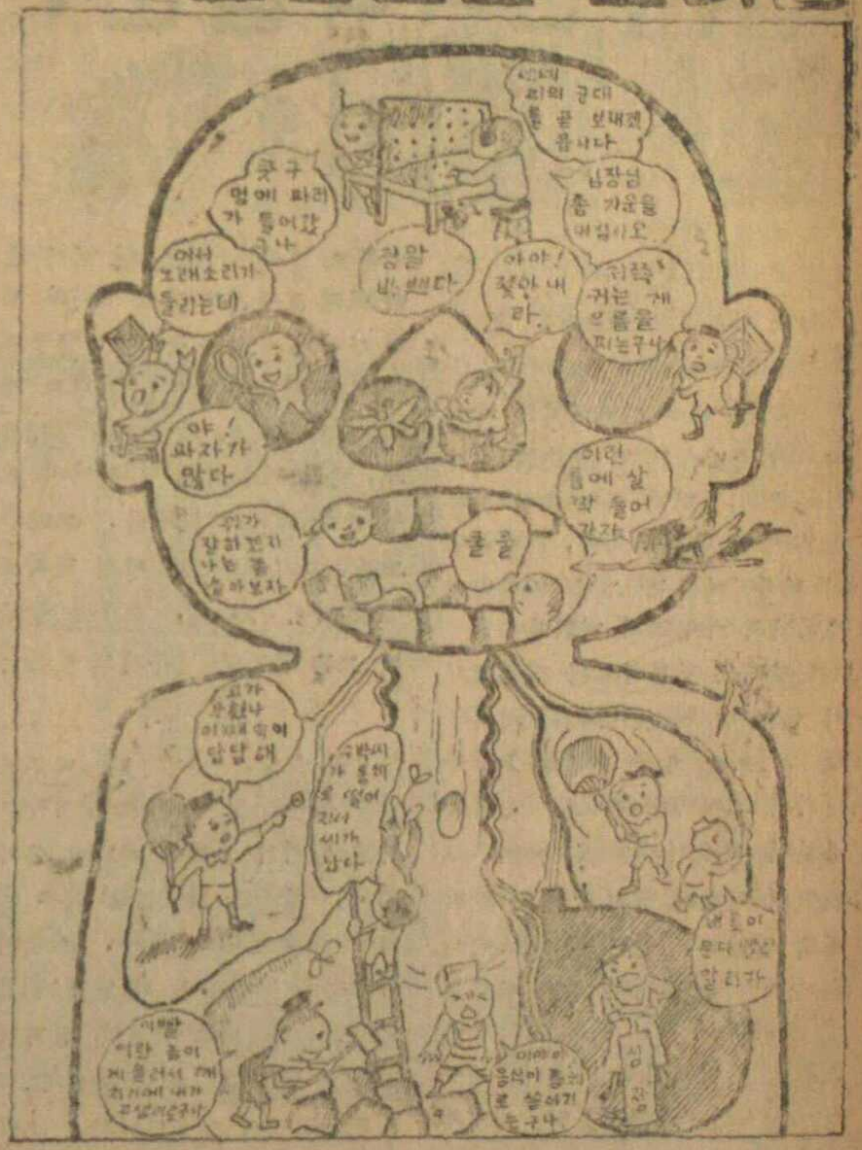
사람은, 대개 한말 오홉의 혈액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혈량의 3분의 1이 없어지면 혈압(血壓)이 감소(減少)되고, 2분의 1이 없어지면 생명이 위독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때는 신선한 피를 보급함으로서만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읍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 회의 채혈량(採血量)은 300그람에서 500그람으로, 몸이 건강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은 혈액형(血液型)은 성질이나 지능(智能)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이 알려진 일이 있는데, 그건 아무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어떠한 혈액형의 사람이든지 공부만 열심으로 하면 급장도 될 수 있고, 공부를 안하면 낙제를 하게 됩니다.

("소학생"전집부 과학계)

*과학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많이 질문해 주십시오.

몸뚱이의 활동을 그림으로 그리면



백두산 이야기 (5)

백두산과 독립군

홍종인

(1)

정작 백두산에 오르는 것은 혜산진에서 부터라고 할것이다. 길주(吉州)에서 떠난기차가 개마고대의 등마루인 백암(白岩)정거장까지는, 허덕 허덕 치받이 길을 더듬어 올라왔으나, 거기서부터 혜산진까지는 그냥 내리받이 길이어서 수월하게 내려간다.

혜산진은 함경북도와 접경이되어 있는 갑산군(甲山郡) 서북쪽 한 모퉁이 압록강(鴨綠江) 상류 강가의 조고마한 고을이다. 비록 산간의 고을이라고 하지만, 그 일대의 약간의 평지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고, 불과 사오십 메터 밖에 안되는 실개천 같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바로 지척간에 개전너 바라보이는 마을이, 만주땅 장백현(長白縣)의 장백부(長白府)라는 고을과 상대하여 내왕하는 국경의 통로인 만큼 농산물이며 기타 일용품이 여기로 모이고 여기서 또 산을 각지로 흘어지는 중요한 지대이다. 특히 백두산 기슭을 위시하여, 근방의 산 속에서 찍어 내는 목재를 다듬어 내는 제재소(製材所)도 있고, 또 여름 한철 장마때에 압록강 물이 넘쳐 흐를 때, 커어다란 아름드리 뗏목을 묶어서 압록강 하류로 선의주(新義州) 까지 흘려 내려 보내기도 하는 곳이라 제법 장사가 융성한 곳이다. 인구로 군이만 명이나 되고, 기타로 가게가 즐비하다. 길주에서 142키로, 아침 다섯시 반에 떠나서 오정 조금 지나 도착했다. 그러고 도착하면서 일행은 다시 제각기 짐을 다시 꾸려서, 백두산 등산의 모든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2)

7월 25일, 이날부터 백두산 산중 생활을 하게 되는 날이다. 아침 일찍기 일행은 트럭에 갈라타고, 압록강 강물기를 끼고 동북쪽 산협길로 달렸다. 오늘의 목적지는 혜산진서 약 일백 팔십 리 되는 집 없는 산중의 길가인 신무성(神武城) 이란 곳이다.

혜산진에서 신무성까지! 오다가다 십 리 이십 리 사이에 동네가 드문드문 있고 산은 첩첩히 쌓이어 골짜기는 끝없이 깊은 이 일대는, 국경이라고 하지만 조그마한 개울같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만주의 광야와 연접해 있는 곳이란 것을 생각하여야 하며, 동시에 백두산에서 잇달린 깊은 산림이, 멀리 북만주까지 연접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한날 지리나 그 자연의 모습만에 주의하여야 할 것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찍기 우리 나라가 외적에게 빼앗길 그때 외눈물을 뿌리며 고국 강산을 하직하고, 북으로 북으로 몸을 감추었던 독립군의 근거지로 이름난 곳이, 백두산 북록 안도현(安圖縣) 장백현 화룡현(和龍縣)등 북간도(北間島) 일대요, 그들 독립군이 때를 보아 왜병이나 경찰과 싸우며 정다운 고국땅을 찾아 넘나들던 곳이 지금 혜산진에서 백두산으로 들어가는 그 일대인 것이다. 여기는 왜의 경찰이 죽어넘어진 곳도 한두 곳이 아니지만, 또 우리 독립군들이 여름 겨울없이 민족의 원수를 갚고자 왜의 경찰을 찾아서 산중으로 숨어 헤매이던 숱그늘 이야말로, 길가의 어느 곳을 보나 다 거기가 아닌가 싶은 것이다. 또 그 중에는 우리 독립군의 피흘린 곳은 없으랴. 미처 모르고 지나는 것이 죄송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독립군 중의 이름높은 분을 들면, 기미년 독립선언이 있던 그때로 부터 왜적과 활발해서, 김좌진(金佐鎭) 홍범도(洪範圖) 최진동(崔振東) 같은 분, 각기 수하의 군대를 거느리고, 독립군 양성에 많은 수고를 했고, 특히 독립선언 다음 해인 1920년 10월 10일 화룡현 삼도구 청산리(三道溝靑山里)에서 우리 독립군을 토벌한다고 달려든 왜의 군대 일개여단(旅團)을 맞이하여 일거에 일천 삼백 여명의 대부대를 몰살시킨 삼주야의 대접전은 너무도 유명한 일이다. 이것이 청산리 싸움이라

고 하여, 김 좌진장군을 사령관(司令官)으로 하고, 참모장(參謀長)에 나 중소(羅中昭) 연성대장(研成隊長)에 이 범석(李範奭) 이런분들의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의 정예(精銳)독립군 이백여명의 일대이었다. 당시의 김 좌진장군은 만주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이 범석장군은 지금의 국무총리가 된 그분으로, 당시 22세의 청년 장교이었다.

혜산진에서 도리어로 약 한 시간만에 장산군 보천보(普天堡)라는 불과 오륙십호 밖에 안되는 마을에 가서 잠시 쉬게 되었다. 이곳이 또 왜의 경찰이 진열 당하던 유명한 곳이니 1936년 6월 4일, 백두산 일대로부터 압록강연안 일대로, 무시 출몰하여 왜적의 간담을 서늘케하던 김 일성군(金日成軍)이, 경찰서를 습격하여 일곱 명을 죽이고 십이 명을 부상케 했던 것이다. 가는 곳마다 왜의 경찰은 경찰서를 포대와 같이 만들어 놓고,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를 짐작케 했던 것이다.

(3)

길은 산길이라고 하나, 소위저 왜들의 국경경비와, 또 산림채벌을 위하여 만든 길이라 넉넉히 자동차가 달릴만도 하고, 또 별로 가파라운 곳도 없이 내내 산길을 알지 못하게, 점차로 더듬어서 오름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보천보를 지나서 그중 큰 장거리로는 보태리(寶胎里)가 있고, 그 다음이 대평리(大坪里), 대평리에 닿는 것이 정오경, 여기서 간단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마을이라고 할 것도 없으나 냉면집이 있대서 가보니, 여기야말로 평지와는 판판으로, 냉면은 감자녹말(澱粉)로 누른 것이요, 간장대신 된장을 풀어서 먹는데 그도한 별미이었다. 별써 여기까지 들어오면 농사짓는 법도 다르다, 산비탈을 깔아서 심는다는 것은 귀밀(燕麥) 이란 것과 감자가 대부분이고, 벼농사 같은 것은 볼 수 없다. 또 대평에서 바로 동북으로 뚫린 돌우솟은 거대한 산이 있으니, 이것이 2108메터의 장군봉(將軍峰) 이란 산으로 백두산 어구를 지키는 위엄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로부터 뒤로 산 줄기가 잇달리어, 남포태산(南胞胎山—2035메터) 북포태산(北胞胎山—2289메터)이 장엄하게 서 있어서, 그 여의 뭇산이 굼실굼실 대해의 물결 같다면, 이러한 산은 마치 섬과 같다고 할 것이다.

대평리에서 일마 안가면 동리라고 할만한곳은 여기서부터 또 없고, 중간에 목재채벌장인 칠도장(七道場) 이란 곳에 집이 네다섯 채 있을 뿐인데, 여기가 혜산진에서 66키로, 포태리 부근에서도 차는 여전히 엿비스듬한 곳을 달리고 있으나, 표고(標高)는 100메터 이상으로, 지형은 높고 우거진 산림엔 하늘에 닿은듯 십여길씩, 떼나무 같이 고루솟은 몇아름씩 되는 전나무가, 백하게 들어선 것을 볼 수 있어서, 완전히 백두산 지대의 별천지로 들어간 느낌을 가지게 한다. 보이는 건 산이요, 산이면 우거진 산림의 연속 뿐, 산림 속에 들어서면 하늘이 보이지 않을만큼 침침하다. 심은 이 없고 베는 이 없이 그대로 자라서 그대로 썩고, 또 그 밑에서 새로 새 나무가 자라지 몇천백 년. 이것을 가리켜 원시림(原始林)이라고도 하는 나무의 바다를 이루었다. 이렇게 수목이 보기 좋은 대삼림 중에서 처참한 광경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산화(山火)로 해서 광대한 면적의 수림이 잎 없는 마른 나무 고치만이 해골같이 무수히 서있는광경이었다. 인가 가까운 산에는 사람의 실수로 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런 깊은 산중에서는 바람에 나무와 나무가 서로 맞비비대는 동안에 불이 나기도하고 또 벼락이 내려쳐서 불이 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며칠씩 불이계속하다가 큰 비가 물리오면 또 그대로 불이꺼지고 마는 것이다.

—계속—

☆모험소설☆

모오구리

【정글의 소년왕】

기플링 저음·작은돌 번안

머리말

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달치부터 세상에도 신기하고 씩씩한 모오구리의 이야기를 계속하여 읽게 되었읍니다. 이 이야기의 원 이름은 정글•북이라 합니다.

정글•북을 지은이는 루디야드•기플링이란 영국의 문학가로서, 인도의 봄베이라는 도시에서 낳아서 거기서 중학까지를 마치고 영국 란던의 유명한 캠브릿지 대학을 졸업하였읍니다. 어렸을 시절을 인도에서 지냈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정이 깊었고, 또 인도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인도에 관한 여러가지 글을 써서 책으로 꾸며냈읍니다.

이 정글•북도 인도의 산과 들과 사람을 가지고 꾸민 소설입니다. 정글이라는 것은, 하늘을찌를 듯한 나무가 빽빽히 들어차서 낮에도 어둘만큼 울창한 수풀을 말하는 것인데, 인도라든가 아프리카 따위의 열대지방에는 아직 사람이 채 들어가지도 못한 이러한 정글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글 속에는, 범이라든가 늑대라든가, 혹은 코끼리, 사자, 구렁이 같은 사나운 짐승이며, 그 밖에 토끼니, 다람쥐니, 타조니, 너구리, 하는 오만가지 새와 짐승이 제멋대로 살고 있으며, 서로 살기 위하여 싸우고 죽이고, 또는 남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동족은 동족끼리 단결하여 살아나아가고 있읍니다.

이와같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대자연 속에서 온갖 짐승과 더불어 자라가는 어린 사람 모오구리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 곧 이 정글•북입니다. 그리하여 이 소설 가운데서는 짐승들이 사람의 사회처럼 서로 말들을 하고, 또 법률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실지로 있을수 없는 일이나, 그러나 이렇듯 짐승들의 수작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은 무엇인지 모르게 그 씩씩함과, 슬픔과 웃음에 여지없이 사로잡히고 말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정글•북은 어린이에게는 정도가 높은 어려운 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이 책의 둘껫권은 영국서 국민학교 교과서로 쓰고 있으며, 세계 여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많은 독자를 차지하고 있는 터이므로 우리나라 소학생도당당하게 읽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정글•북은 여러 길로 된 굉장히 큰 작품입니다. 이제 모오구리라는 제목으로 소학생에 실리는 대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것을 따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믿읍니다. 소학생 독자 여러분은 모오구리를 한번 읽으면, 이것이 끝날 때까지 줄

"모오구리"에 나오는

짐승 이름

아케라……통령늑대
샤·칸……모오구리의 부모를 잡아먹은 범
타바귀……간사한 승냥이
발 루……모오구리의 선생
비기라……모오구리의 뒤를 보아주는 표범
카 아……구렁이
란 ……소리개
하 티……코끼리
망 ……박쥐

금하고 안타까워서 다달이 소학생 나오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작은 돌 씀

새끼 사람

여기는 인도 어느 깊은 산속 시오니라는 언덕입니다. 해는 머지 않아 땅거미지려하나, 무더움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아직도 사방이 이글이글 타는 듯하여, 도무지 무더웁니다.

늑대가 사는 굴.

아비 늑대가 낮잠을 한참 달콤하게 자고나서, 몸을 한번 굽고 하품을 하고, 발을 쭉쭉 폈읍니다. 어미 늑대는 그 커다란 젖빛 코를, 새끼들 위에 내고 앉아 있었읍니다. 새끼들은 모두 네 마리입니다.

어미의 코 밑에서 와글와글 떠들고 있었읍니다. 어느름에 달빛이 늑대 굴 속에 스며 들기 시작하였읍니다.

"자아, 사냥을 나가볼까."

하고 아비 늑대가 굴을 나서려고 하였읍니다.

이 때에, 흐느적흐느적 꼬리를 저으며 이 쪽을 향하여 올라오는 것이 있었으니 그는 승냥이의 타바귀였읍니다. 그는 간사한 목소리로,

"사냥을 나가시는구먼. 많이 얻어 오십시오. 많이 잡거들랑 세상 천지에 굶주린 놈이 있다는 것을 아예 잊지 마십시오. 오오, 귀여운 아가들, 어제면 저렇게 잇발들이 하얄까?"

하고 연방 늑대를 치켜세웠읍니다.

인도에 사는 늑대는 타바귀를 무척 얄보는 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간사한 승냥이는 남의 이간질하기가 일쑤며, 거짓말이 난당이며, 게다가 마을에 내려가서 쓰레기통을 뒤져 가지고는 절레나부랭이나 가죽 부스러기를 처먹고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늑대들은 승냥이를 또 무서워하였읍니다. 그것은, 타바귀가 이 정글 안에서는 제일 먼저 미친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타바귀는 제가 아무 힘이 없는 것은 다 까먹고, 모든 짐승을 만나면 물어 뜯을 듯이 숲 속을 헤매어 다니었읍니다. 범일찌라도 타바귀가 미친 시늉을 하면 겁을 먹고 피하였읍니다. 만일 그 미친증이 옮았다가는 큰일이었으니까. 우리네 사람들이 "공수병"(恐水病)이라고 부르는 그 미친 이었읍니다.

"들어와 볼테면 보게. 그러나 먹을 것은 없어."라고 아비 늑대가 말한즉, 타바귀는

"늑대한테는 없을찌 모르나 나 같은 천덕군이에게는 먹다 버린 백다귀도 큰 음식입죠. 우리 승냥이주제에 좋구말구가 있겠읍니까?"

하고는, 굴 깊은 구석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읍니다. 거기에 살이 조금 붙은 암사슴 백다귀가 있는 것을 보자 그대로 주저앉아서, 백다귀를 제법 맛있게 오두둑오두둑 깨물어 먹는 것이었읍니다.

다 먹고 나서 그는 연방 입맛을 다시며,

"아주 잘 먹었읍니다. 아이구 어쩌문 저렇게 아기들이 예쁠까? 눈이 큼직한 게, 시인스럽게 잘두 생겼지. 정말 대장의 아드님들이라 다르구먼요."

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퍼붓는데, 이렇게 남을 앞에다 두고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천하고 모욕적인가는 누구보다도 타바귀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터이었읍니다. 그는 흘낏 아비 늑대와, 어미 늑대가 성을 찌프리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빙

이 영철 선생 지은

틀리기 쉬운 말

한글 맞춤법을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는 책!

책값 80원 아 협 발행

그레 웃었읍니다.

타바귀는 그리고도 촘처럼 일어서려고도 안했읍니다. 제가 남을 놀려대는 것이 무척 상쾌한 모양이 었읍니다. 이윽고 그는 추근추근한 어조로,

"저 왜 샤•칸을 아시죠? 그 친구가 사냥터를 바꿨다는 걸 아시는지? 요 담 한 달은 여기 올라와서 사냥을 하겠다구 나더러 그렇게 말하던데요."

하였읍니다. 샤•칸은 일로부터 20 마일 저쪽의 와잉강가라는 강가에 사는 범이었읍니다.

이 말을 듣자 아비 늑대는 벌컥 성을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읍니다.

"그놈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 정글의 법률에도, 그놈이 아무 승락도 받지 않고 잠자리를 옮길 권리가 없다. 그놈은 10 마일 안팎의 짐승들을 모두 위협할테지 어디 두고 보자."

몹시 흥분된 어조였읍니다.

곁에 있던 어미 늑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였읍니다.

"그놈이 병신 소릴 들어두 싸지. 배넷병신으루 다리 하나가 짧아요. 그래서 그놈은 애매한 가축만 물어 죽이지. 그놈이 와잉강가에서 하던 버릇을 인제 예 와서 해보령으루. 이 근처 사람들이 범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다가 산에 불이나 지르면 덕택에 우리들이 쫓겨다녀야 하니 참 샤•칸이란 놈이 얼마나 고마운지."

"고맙다고 하시더라고 전하잡쇼?"

하고 타바귀가 어미 늑대의 말을 가루채였읍니다.

"썩 나가거라! 나가서 네 주인놈허구 얼려 다녀라! 오늘 밤은 보기두 싫다."

아비 늑대가 고함을 쳤읍니다.

"가겠읍니다." 타바귀는 순순히 말했읍니다. "제 아래 숲에서 샤•칸의 목소리가 들리는 군요. 엥이 괜히 쓸데없는 소릴 해가지구..."

아비 늑대는 귀를 세웠읍니다. 이때에 개울까지 내려가는 골자구니 저쪽에서, 먹을 것을 잃고 으르렁대며 헤매는 범의 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던 것입니다.

"망할자식 같으니라구 저따위 소리를 내면 무슨 사슴마리나 걷딜 줄 알구."

"저것좀 들어보세요."

갑자기 어미 늑대가 말을 가루챘읍니다.

"그놈이 찾는 것은 사슴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따는 그 으르렁대는 소리는, 보통 짐승을 찾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무엇인가 큰 덩어리를 노치고 간장을 조리는 듯한 처량한 울음소리였읍니다.

"사람을 찾다니!"

아비 늑대는 참다못하여 회잇발을 으드득 갈면서,

"몹쓸놈같으니라구. 품병에 개구리두 많진 않나. 사람을 잡아 먹다니. 더구나 우리 땅에서!"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은 길코 명령하지 않는 정글의 법률은, 새끼들에게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 하는 것을 모일 때 밖에는, 어느 짐승들에게도 사람을 먹는 것을 금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메에라도 불문이 정글을 멀리 떠나서 해야 되

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만일 사람을 함부로 죽이었다가는, 그런 일이 있은지 머지 않아서, 코끼리를 타고 총을 들은 백인(白人)들과, 경과 횃불을 든 수백명 인도사람들을 스스로 부르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읍니다. 이렇게 되면 정글에 사는 모든 짐승들은 턱없는 고생을 겪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이렇게들 말하고 있읍니다. 사람이란 것은,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악하고, 또 가장 순하다. 그러므로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사납다고 뽐내는 짐승들로 점잖지 못한 행동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먹는 날에는 잇발을 상해서 나중에는 이가 몽땅 빠져 버린다. 고 믿고 있는 것이었읍니다.

범의 으르렁 소리는 점점 커졌읍니다. 마침내 범은 견신을 부르르 떨면서 발악을 하는 듯이, 어흥! 하고 울부짖었읍니다.

"어째다 노쳤을까요?"

어미 늑대가 이렇게 말하고 남편을 쳐다보았읍니다.

아비 늑대는 뒷 걸음 뛰어 가더니, 가까운 숲 속에서 샤·칸이 미친 개 모양으로 쏘다니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저 못난놈이 나뭇군이 피어 놓은 모닥불에 뛰어들다가 발을 데었나 보다. 타바귀만 놈이 따라 다니는군."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을 즈음, 무엇인가 버스럭버스럭하는 소리가 들리었읍니다.

늑대는 날새게 달려들 자세로 몸을 움추리었읍니다. 하더니, 순간에 늑대는 펄쩍 나는 새와 같이 몸을 공중에 솟구쳐 올랐읍니다. 그가 다시 먼저 자리에 앉았을 때까지 불과 1초 동안의 날랜 행동이었읍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늑대 앞에 조그만 사람—빨가숭이 고동색 빛같의 귀여운 어린 아이가 서 있는 것이었읍니다.

"그게 새끼사람인가요? 이더 이리좀 데려 오슈. 난 아직 한 마리도 본 일이 없어요."

어미 늑대가 위에서 보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제 새끼를 물고 다니는데 선수인 늑대는, 만일 달걀을 입에 물어도 깨뜨리지 않을 수 있을만큼 능난찬 것이었읍니다.

아비늑대의 턱은 그 아이의 잔등이를 꽉 물었던 것인데, 그가 제 새끼 있는 곳에 아이를 내려 놓았을 때는 잇발 자죽 하나 없었읍니다.

"어째면 이렇게 작을까. 어째면 아주 빨가숭일세. 어째면 이렇게 대담할까!"

어미늑대는 신통하고 이상해 하였읍니다. 그러자 그 어린 아이는 늑대새끼들을 헤치고 어미 늑대의 따뜻한 안가슴으로 파고 들어왔읍니다.

"이것좀 보우. 우리 애들허구 같이 젖을 빠는구려. 내가 사람의 아이를 젖을 먹이다니. 아 그래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답디까?"

"글쎄, 늑대 젖을 사람이 먹었다는 얘기는 별루 듣지 못했

는걸. 이 아이는 털이 조금도 나지 않았구먼. 이걸 발로 조금 건드리기만하면 금방 숨통이 막힐 터인데, 그것두 모르구 우리를 조금도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으니 별일이지?"

아비 늑대도 마음이 흐뭇한 모양이었읍니다.

이 때에 달빛이 무엇엔가 잠간 가리웠읍니다. 그것은 샤·칸의 커다란 머리와 어깨가 늑대굴 어구에 불쑥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타바키가 끼룩끼룩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예,예. 바루 그 속으로 들어갔읍니다."

아비 늑대가 벌떡일어나 큰 소리로,

"이거 샤·칸선생 오래간만이로군. 그래 오늘은 무슨 일로 나를 찾아 오셨오."

그 눈은 흥분과 노여움에 날카롭게 빛났읍니다.

"내 먹을 것을 찾으러 왔네. 여기 사람의 새끼가 들어왔지? 아비 어미는 노쳤으니 그놈이나 먹어야겠네."

하고 샤·칸이 말했읍니다. 아비 늑대가 말한 바와 같이, 샤·칸은 나뭇군의 모닥불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발을 불에 데워 그 아픔을 견딜 수 없어 그만 미칠 듯이 횡포해진 것이었읍니다. 무슨 큰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았읍니다.

그러나 아비 늑대는 굴 속이, 범이 들어오려면 너무나 좁은 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지금 서 있는 그곳만 하더라도, 샤·칸의 어깨와 앞발은 비좁아서 더 꼼짝할 수가 없었읍니다. 마치 사람이 무슨 통 속에 들어 있는 것 모양으로.

아비 늑대는 점잖게 꾸짖 듯이 말했읍니다.

"늑대들은 자유로운 백성이요. 늑대들은 늑대 두목의 지시를 받고 사오. 얼룩이 옷을 입은 기측도둑의 명령은 듣지 않소. 저 사람의 아이는우리 것이요. 죽이려면 우리가 죽이지."

"무엇이 어째구 어째? 아 말이면 다 하는 거야? 아아니, 내가 힘들여 얻은것을 찾는데 언제까지 이 개 굴 속에 코를 처박고 있어야 된단 말야? 에 들어 봐라. 나야 나! 그때. 샤·칸을 모른단 말이냐?"

범의 외치는 소리는 굴 속에 천둥 같이 울리었읍니다.

이 때에 구석에 있던 어미 늑대는, 새끼들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섰읍니다. 그 눈은 어둠 속에 번쩍이는 새파란 달빛처럼, 샤·칸의 타는 듯한 눈초리와 마주 노리고 있었읍니다.

"네가 샤·칸이라면 나는 락샤(귀신의 뜻)다! 저 사람의 새끼는 내 것이다. 절뚝발이 미친놈아, 똑똑히 봐라. 누가 꿰레두 내 것이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나는 저애를 잘 길러서, 우리 자식들과 함께 뛰어다니게 하고, 함께 사냥질도 시킬테야. 똑똑히 들어봐라. 이 어린 아이를 먹으려는 부란당아! 개구리 사냥군아! 나는 이에기 너를 사냥하도록 길러 논 테야! 어서 발뒤꿈치를 돌려라! 안 물려서? 안 물려서면 남은 다리떡다귀를 마저 부러뜨릴테다! 그래도 싹 나가지 못해?"

불을 토하는 듯하였읍니다.

아비 늑대는 이 엄청난 기세에 얼이 빠져 보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샤·칸은 아비 늑대라면 혹 덤벼들어 싸웠을찌 모르거니와 어미 늑대에게 대들 수는 없었읍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는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어미 늑대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하여 너무나 불리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크게 으르렁대고 굴 속을 뒷걸음질쳐 나왔읍니다. 밖에 다 나온 뒤에 이렇게 고함을 쳤읍니다.

"개새끼들이 이불 속에서 활개를 치지만 어디 보자. 그 사람의 새끼를 동네에서 어떻게 처치하나. 그것은 내거야! 내 잇발에 아드득 아드득 바서질 물건야! 흥, 도둑놈의 개년놈들!"

어미 늑대는 숨이 찬 것을 가라앉히며 아이들 있는 틈에 제 몸을 덩굴리었읍니다. 아비 늑대는 좀 근심스런 소리로,

"샤·칸의 그 말이 옳긴 해. 저 아이는 동네에 다 말해 줘야 해. 그래 당신은 그 사람의 아이를 정말 기를 작정이요?"

"정말이라니요?"

어미 늑대는 숨찬 소리로 말하였읍니다.

동시

산 길

이 원 수

산길은 가시덤불 바람 한 점 없는데
앉아 쉬는 바위 위에 산메뚜기 한 마리
먼데서는 뻐꾸기가 울고 있구나

잘 가거라 잘 가거라 말은 하고도
고갯길 여기까지 따라온 누나
인제 그만 가세요 내려 가세요

산길은 가시덤불 바람 없는 솔밭 길
싸리꽃을 내 가슴에 꽂아 주는 누나야
뻐꾸기는 자꾸만 울고 있구나

그림·한 홍 택

"저 아이는 발가숭이로 왔읍니다. 밤에 단지 혼자서, 굶주린 몸으로, 그러면서 조금도 겁을 내지 않았읍니다. 보세요, 저 애는 내 아기를 구석에다 메다밀었지요? 만일 그 절룸발이 녀석에게 저 애를 내줘만 보세요. 그놈이 곧 물어 죽여가지고는 와잉강가까지 도망한 것은 뻔한 노릇이라우?. 정말 기르다니요, 기르고 말고요."

하고 어미 늑대는 어린 아이를 향하여,

"오늘은 일찍 자거라, 귀여운 모오구리야.—— 너는 이제부터 이름이 모오구리란다. 반드시 너는 샤·칸이 너를 사냥질하 듯, 네가 샤·칸을 사냥질하도록 될게다."

"그렇지만 동네 무리들이 무어라구나 하지 않을까?"

아비 늑대는 역시 염려가 되었읍니다. 정글의 법률은, 늑대가 혼인하였을 적에는 그가 소속해 있던 무리에서 떠나도 좋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정해져 있읍니다. 그러나 그 몸에서 난 아이들이 젖만 떨어지면 곧 그는 그 아이들을 무리의 회의에 데리고 가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그 회의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이 밝게 떠 올랐을 때에 열립니다. 그런데 회의를 여는 목적은 다른 늑대들이 그 아이들의 얼굴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여 얼굴을 알린 뒤부터는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슴을 잡기 전에 만일 무리 가운데 어른 늑대가 아이 늑대를 죽이면, 그는 곧 사형을 받는 것이었읍니다. 죽인 늑대가 잡히는대로 죽는 것이 이 늑대나라의 엄한 법률입니다.

아비 늑대는 그 아이들이 저

혼자 뛰어다닐만할 때를 기다리었읍니다. 그리하여 무리의 회의가 열리는 보름날 밤에 새끼들과 모오구리와 어미 늑대를 데리고 회의바위에 갔읍니다.

그곳은 커다란 바위가 우뚤우뚤 있는 언덕 맨꼭대기인데, 여기는 100 마리의 늑대가 숨을 수가 있었읍니다.

힘과 지혜로써 온 무리를 이끌고 다아가는 통령 늑대 아케타가 제 자리로 정한 바위에 몸을 쭉 펴고 엎드려 있었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여러가지 빛갈을 한 40 마리는 더 됩즉한 늑대들이 앉아 있었읍니다. 늙은 늑대로부터 겨우 혼자 뛰어 다닐만한 어린 늑대까지 뛰섞여 있었읍니다. 통령 늑대는 벌써 1년이 넘도록 무리를 다스려 왔던 것입니다.

그 바위에서는 모두 거의 입을 다물고 있었읍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앉아 있는 둥구런 테두리 안에서 근두박질을 하며 놀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른 늑대들이 가만히 아이들한테 가서 찬찬히 그 얼굴을 보고는, 소리 없이 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었읍니다.

아케타는 자리에 엎드린채 앞아서 외칩니다.

"너희들은 법률을 알고 있다. 너희들은 우리나라의 규칙을 잘 알고 있다. 잘 봐 두어라."

마침내 아비 늑대는 모오구리를 한가운데로 밀어 세웠읍니다. 그러자 모오구리는 달빛아래 반짝이는 작은 조약돌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이었읍니다.

아케타는 머리를 조금도 들지 않고 그 무거운 목소리로 지이어 외치는 것입니다.

"자, 다들 보아라!"

이 때에 바위 뒤에서 천둥같은 소리가 들렸읍니다. 그것은 샤·칸이었읍니다.

"저 아이는 내것이다. 내게 돌려 보내라. 자유로운 백성과 사람의 새끼와 무슨 관계가 있단말인가?"

아케타는 그 귀를 조금도 곱짝 않고,

"다들 보아라 늑대들아! 자유로운 백성과 자유로운 백성 이외의 것의 명령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잘 보아라!"

굶다란 목소리들이 합창 처럼 일어났읍니다.

이 때에 네살박이 늑대 하나가 샤·칸의 질문을 아케타에게 되받아 물었읍니다.

"자유로운 백성과 사람의 자식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되면 재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글의 법률은, 아이

(52페이지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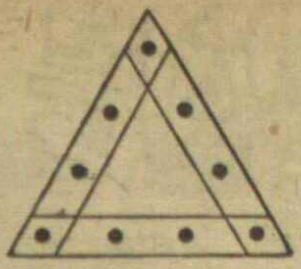
재미있는 ★수학 문제★

공기가 맑고 날씨가 신선하여 전심전력 해서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 왔읍니다. 다음 수학 문제는, 조금 생각만 하면 아주 쉬운 것으로, "소학생" 68호에 난 마법진 (마직스퀘어)을 응용한것으로, 모양이 좀바뀐 것입니다. 동무들! 학교 공부를 하여 좁시 머리가 피로하였을 때, 정난삼아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답을 보지 마시고 풀어야 더 흥합니다.

8	1	6
3	5	7
4	9	2

제 1 도

먼저 예를 든, 그림을 보십시오. 가로, 세로, 또는 모로 합한 수가다 15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러한 것을 마법진이라고 합니다.



【문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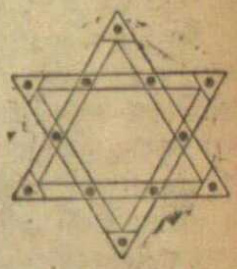
① 홀수인 1, 3, 5, 7, 9, 11, 13, 15, 17로 마법진을 만들어 보세요.

② 이번엔 짝수 0, 2 4, 6, 8, 10, 12, 14, 16으로.

③ 원쪽 위 그림과 같은 네모꼴 (長方形) 안에 숫자를 적당히 바꾸어 각변의 보탠 수가 ①18, ②20 두 가지가 되게하여 보세요.

④ 이번엔 1——9까지의 숫자를 옆의 그림 세모꼴 속 까만 점에 다 적당이 넣어, 각 변의 보탠 수가 똑같게 해 보십시오.

⑤ 아래 그림은 세모꼴 두 개로 된 변이 여섯 개 있는 별 모양입니다. 여기다 1에서 12까지의 숫자를 적당히 넣어 여섯 변의 보탠 수가 다 같게 하여보십시오.



(해답은 12페이지에 있읍니다.)

☆요술놀아☆ 묶은 양손 빼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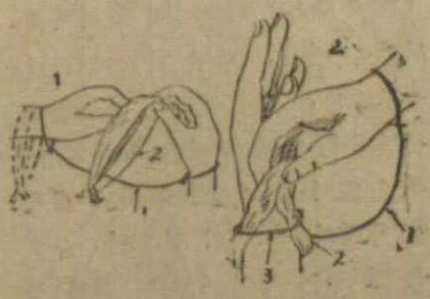
동무들이 네어섯명 모였을 때 이 장난을 하면 재미있읍니다. 먼저 어떤 동무에게 자기의 양쪽 손목에다 튼튼한 오래기로 묶이 달라고 한 다음, (원쪽 그림) 그 오래기 (1)에 손수건 (2)의 양 끝을 매어놓이드리게 합니다.

"동무들! 이렇게 나의 양손을 오래기로 묶었는데 이 오래기에 손수건을 매어 놓이드려 놓았읍니다. 지금 손수건의 마디를 끄르지 않고, 이 손수건은 오래기 (1)에서 빼내어야 한텐데 어떻게 하면 되겠읍니까?"

갑자기 이런 문제를 내놓으면 누구나 어리벙벙하여 선뜻 못할 겁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다음 방법대로 간단히 손쉽게 하면, 여러 동무들은 깜짝 놀랄 것은 물론이지요.

"방법"

먼저 첫째 그림에 점선으로 그



린 데에다가, 예를 들면 원편 한쪽 손목에 옮깁니다. 즉 점선으로 그린 데에 끈에 걸려있던 수건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둘째 그림과 같이 원편 팔목에 묶여있는 오래기의 둘레 (3) 사이로 손수건을 빼내어 손목에서 쑥 잡아당기면 됩니다.

여기에서 쓰는 손수건은 인조견이나 두께가 얇은 손수건이면 더욱 잘 됩니다. 더구나 손목에다 오래기로 너무 빡빡하게 매어놓으면, 손수건이 빠지기 힘드는 것이니 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무의 손에 묶어 놓고 해보라고 먼저 한다음, 하지 못하고 쩔쩔 맬 때에, 나중에 해보여 주는 것도 좋겠지요.

농아협회를 찾아서

박 기 자

현재 남반에 있는 농아(聾啞…벙어리와 귀먹어리)의 수는 실로 5만 명이나 되어, 전국적인 통계로 본다면 10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남과 같이 건강한 몸으로 이 생에 태어나, 행복한 가정에서 재밌게 살던 그들이, 무슨 운명(運命)의 알궂은 장난인지, 중도에 병을 앓고 다시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벙어리나 귀먹어리라는 뜻하지 않은 슬픈 몸이 되어, 이제껏 광명의 앞날을 꿈꾸던 그들은, 하루아침에 슬픔과 괴로움을 안고, 어둠 속으로 사람을 피하여 그늘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씩씩한 희망이 가슴깊이 솟다가도, 한번 자기의 병신된 몸을 돌이켜 생각하면, 한낱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실망을 느끼는 그들이 아닙니까. 이러한 그들을 위하여 이 사회는 얼마만한 도움의 손길이 뻗쳤는지? 또한 해방된 이나라에서, 아니 독립된 오늘날에 있어서, 어떠한 배움의 길을 열어 그들로 하여금 신생(新生)의 기쁨을 주었는지? 국영(國營)으론 이제껏 서울 효자동에 국립 맹아 학교가 하나 있을 뿐, 사사로이 만든 것으로, 대구와 전주에 각각 맹아 학원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을 위한 구제사업이 막막하던 이때에 그들의 새로운 《희망의 집》으로 불쌍한 그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하여 작년 4월 이 대한 농아 협회(大韓聾啞協會)는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모오든 시설과 준비에 바빴던 이 협회에선, 올 3월부터는 목공부(木工部) 피복부(被服部)…양재부 미술부(美術部)가 생기고, 이미 기술을 배워 각 직장(職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야학부(夜學部)까지 있어, 온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쉴사이도 없이, 빛나는 내나라 한글을 배우기 위하여, 많은 학생이 열심으로 공부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술을 배우고 일하는 그들은, 자기들에 대한 차디찬 사회의 바람을 물리치고, 오히려 이것을 거름삼아 굳세게 살아 나아가려는 의지를 품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구제받음으로써, 마음의 입도 열리고 귀도 들리어, 머지않은 장래에 커어다란 사업을, 또는 훌륭한 인물과 예술가가 많이 나올 것이라라 믿습니다. 묵묵히 목공일을 배우는 그들, 양재를 배우기 위하여 재봉틀과 싸우는 그들, 탈못하는 정렬과 불타는 가슴을, 다만 한자루 붓에 담고 하이얀 종이 위에 마음을 그려놓는 그들 머리엔, 《씩씩하게 살자!》이러한 생각이 언제나 깃들여 있을 것입니다.

아래 실린 작문 두편은, 이 협회에 다니는 그들의 꾸밈없는 글로써, 얼마나 괴로워하고 쓸쓸한 생활을 하였으며, 또 그 쓰라린 생각을 물리치고, 사회를 위하여, 또는 자기의 장래를 좀더 밝게하기 위하여 공부하며 노력하고 있는지, 눈물과 동정없이는 읽지 못할 글들입니다. 끝으로 동무들은, 그들이 배우고 있는 모양을, 59페이지에 있는 화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작 문☆

내 이 야 기

안 승 준

나는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現實)에 울고만 있어서는 알될 것을 깨달았다. 깨달은지는 이미 오래다. 나의 귀가 먹은지 어느덧 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것은 내가 어떤 중학교 1학년 때 일이다. 때는 봄철, 온갖 꽃이 만발하여 봄을 즐기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4월 중순(中旬) 때였다. 시내에 전염되고 있는 유행병에 걸려, 그리고 또한 이름 모를 열병의 무서운 손길이 나를 사로잡아, 반달 동안이나 드러누어 생사(生死)를 살피기 어려울만큼 중병에 고생하였었다. 사랑에 넘치는 부모님의 지극한 간호에, 그렇게도 지루하던 병상(病床)에서 한달만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는, 병이 나았다는 기쁨보다도, 더 무서운 괴로움에 시달림을 받게 되었다. 나의 일생에 있어서 모오든 희망과 기쁨을 빼앗아 간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 귀가 영영 들리지 않아, 꿈에도 생각하지 않던 귀먹어리가 된 것이다. 나는 그때 실신한 사람모양 귀먹은 것을 슬퍼할 줄도 모르고, 내가 불쌍한 사람이 되었고나 하는 생각도 들지않았다. 다만 그때 나는 모오든 것이 귀찮고, 생각할 기운조차 없었다. 다만 나에게 있어서 제일 슬프게 생각된 것은, 나의 앞길을 위하여, 병신된 나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딱할 만큼 슬픔과 한숨으로 부모님이 날을 보내시는 것이었다.

부모님은 오로지 내가 귀먹은 것이 자기네들 잘못이라고 날마다 뉘우치며 때없이 한숨을 쉬면서 듣지 못하는 나를 향하여 어찌하면 좋으냐고 한탄할 뿐이다. 나는 그때 어리었고 집안 형편도

좋았기로, 날마다 이웃 동무들을 끌고 사람을 피하여 산으로 종일토록 쏘다녔다. 나는 종시 사람을 무서워 하였고 어려워 하였다. 산에 가서 고독하게 홀로 온종일 보내는 날이 날마다싶이 계속되었다. 듣지 못하는 나는 말 못하는 대자연의 품 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것을 유일의 낙(樂)으로 삼았다. 그러나 세월이 갈쑤록 이러한 노릇이 의미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회에 태어난 이상 한 사람으로써, 비록 완전한 사람은 못될망정, 그래도 이 몸에 맞는 그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 깨닫고, 이제껏 한 자기의 어리석음을 뉘우쳤다. 그러고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결심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중학교서 뛰고 공부하던 동무들과 나는 너무나 만 세상에 산다는 생각에 몹시도 괴롭기는 하였으나, 또 그들이 씩씩하게 뛰노는 중학생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나와 놀기를 꺼리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 생각도 났으나, "귀먹어리가 된 지금에와서, 모오든 것은 그림의 떡밖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마음에 채찍질을 하였다. 그러고 무슨 일이 닥치든, 전의 동무들이 안놀든, 비웃든, 모오든 것을 씩씩히 물리치고 살아나아갈 것을, 마음 속 깊이 깊이 맹세하였다.

☆작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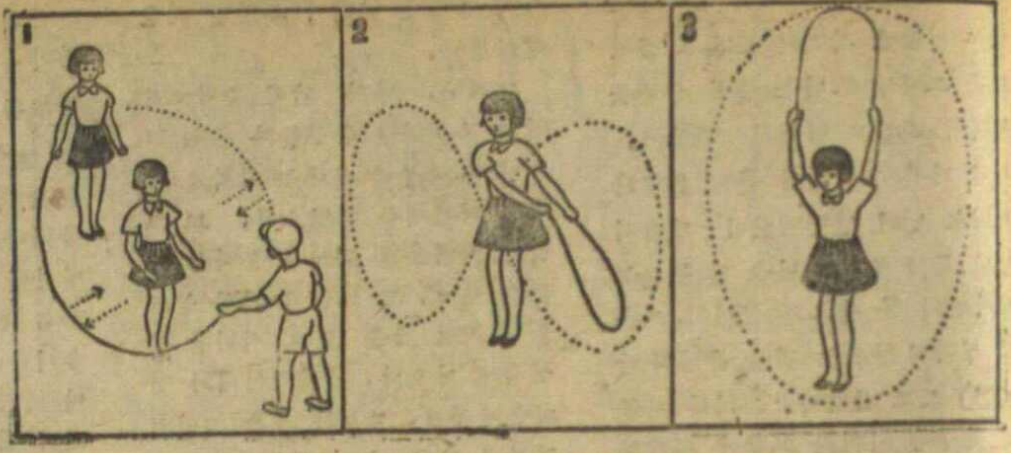
어릴때부터 지금까지

유 숙 히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병신이 많이 있읍니다.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으로, 말 못하고 듣지 못하여 쓸쓸한 마음으로 그날 그날을 쓸쓸하게 지내고 있읍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어머님이 살아계실 적입니다. 갑자기 중한 열병에 걸려, 순간의 잘못으로 그만 나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벙어리와 귀먹어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는 재미있게 이야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웃기도 하여, 화려한 장래의 꿈을 꾸며 행복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재미있던 과거와 병들었던 그 때를 고요히 생각하여 볼 때, 이 얼마나 소름끼칠 노릇입니까! 어머니께서 나를 낳으시고 퍽 기뻐하셨거늘, 이렇게 될 것을 누가 알았겠읍니까! 이 때부터 저는 전에 명랑하던 생활이 점점 어둠 속을 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나이 어릴 때는 그다지 실망되는 것을 느끼지 않았으나, 세월이 갈쑤록 나 자신 쓸데 없는 병신이란 생각이 자꾸 가슴을 눌러, 나오는 것은 한숨밖에 없었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러나 있다면 또 얼마나 있는지? 또 그런 사람들은 나모양 슬퍼하고 실망하고 있겠지, 때없이 이러한 생각 뿐입니다. 그러나 병신이 된바에야 어찌할 도리가 있겠읍니까. 이럭 저럭 몇 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동생은 국민학교에 입학하여, 매일 즐겁게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합니다. 나는 어떻게도 그것이 부러운지, 이제껏 "나는 병신이니까…"하고 공부할 꿈도 못 꾸던 나는, 나도 열심으로 공부나 해야겠다고 굳게 마음 먹었읍니다. 그리하여 나는 부모님의 승락을 맡아, 효 자동에 있는 국립 맹아학교에 입학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의 기쁨을 무어라고 말해야 좋을찌 모릅니다. 입학하고 보니, 나 같은 병신이 이 세상에 하나둘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실제 눈으로 보았읍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나와 같이 재미없는 생활을 보내고 한탄하며 살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 학교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도 무슨 인연인지 서로들 앞날을 격려하며 지나는 동안 어느덧 5년이란 세월이 흘러 졸업하게 되었읍니다. 졸업할 때의 쓸쓸한 마음과, 또다시는 이러한 기회가 안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어쩐지 졸업하기가 싫은 생각이 들었읍니다. 세월은 흘러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사슬 밑에서 풀려 해방이 되었읍니다. 나는 한글을 배우기 위하여 그렇게도 그리던 학교 생활을 또 하게 되었읍니다. 나는 2년 동안 다니고 중등부(中等部)에 들어갔으나, 도중에 고만두고 양재 학교에 들어가 보통 사람과 같이 공부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나의 잘못이었는지, 보통 학생들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았읍니다. 나의 마음 속은 괴로움으로 가득 찼으나, 오직 이 사람들에게 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노력해 가지고, 반년 동안 열심으로 학과를 배웠읍니다. 공부를 하고 보니, 점점 자신이 생겨, 장래의 희망을 가지고 원대한 꿈을 꾸며 생활하고 있읍니다. 이제는 "내가 병신이다."라는 슬픔보다도, 장래 양재봉(洋裁縫)으로써 훌륭하게 성공하리란 희망으로, 날마다 유쾌히 지내고 있읍니다.

줄넘기

박 운 섭



☆1·2학년

①혼들 줄넘기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고 있는 줄을 뛰어 넘어 자연히 줄넘기의 방법을 연습하게 된다.

②공 두르기

줄을 두르는 연습인데 몸 앞에8 자 모양을 그리듯이 줄을 두름. 왼(오른) 쪽 위로부터 오른(왼) 쪽 아래로 내리두르는 것이 바른공두르기요 왼(오른) 쪽 아래로부터 오른(왼)쪽 위로 치두르는 것이 거꾸로두르기이

③두발 뛰기

줄의 중턱을 두 발끝으로 밟고, 줄의 양 끝이 어깨에 닿을만큼 되는 줄을 가지고, 혼자서 바로 두르기와 거꾸로 두르기를 연습함.

④외발 뛰기

이것도 바로 두르기와 거꾸로 두르기를 연습함.

⑤발밑 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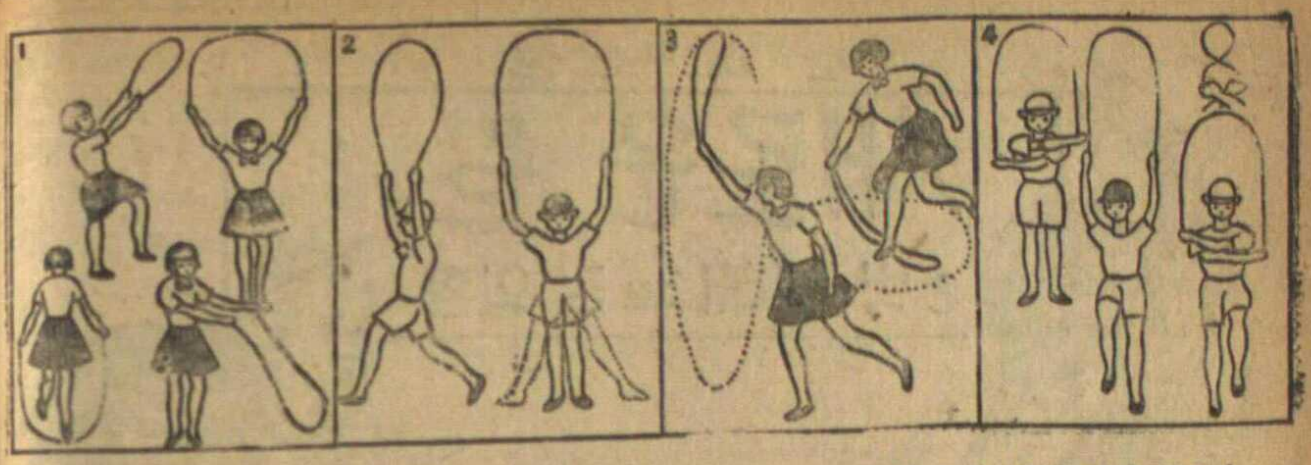
한줄로 잇달아 선 앞쪽으로부터, 두 사람이 줄을 맞잡고 땅에 가깝게 흘어 가고 다시 흘어 오는 것인데, 뛰는 사람들은 그 줄을 뛰어 넘으면서 들아서고, 줄이 다시 올때 또한 뛰어넘으면서 들아서서 처음과 같이 정돈함.

⑥줄넘기 달음질

줄을 뒤로 돌며 준비하며, 도중에서 줄에 걸린 때는 그 자리에서 고쳐 시작함.

⑦데려오기 달음질

혼자 뛰어 갔다가, 올 때는 한줄 안에 들이 뛰어옴.



☆3·4학년

①바로 거꾸로 이어 두기

바로 두르기에서 줄을 옆으로 공두르면서, 그 옆으로 돌아서서 거꾸로 두르기를 함. 거꾸 두르기에서 바로두르기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로. 두발 뛰기, 외발 뛰기 다 좋으며, 걸걸 몸가짐에 주의하여 보기 좋게 할 것.

②두발 벌려 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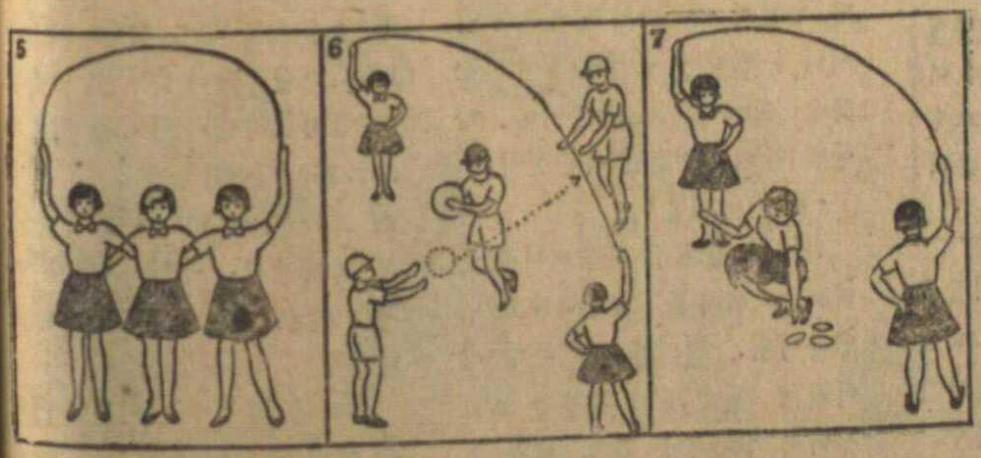
두발 뛰기로부터 발을 앞 옆으로 벌리어 뛰며, 지속하여 왼발을 앞으로 오른발을 뒤로 벌리고, 다음에는 오른발을 앞으로 왼발을 뒤로 벌리어 뜀.

③한발 내리며 벌리며 뛰기

내리고 뛰기 나 (그림 1) 벌리고 뛰기나, (그림 2)다 적당히 줄을 바꿔 뛰면서 연습함. 양끝을 한손에 쥐고 두름.

④팔 걸어 두르기

팔을 가슴 앞에 바짝 엇걸어 붙이고, 그대로 줄을 넘음. 팔을 걸는 것은 왼팔 오른팔을 번갈아 조개어 걸음. 팔 걸어 두르기에는, 보통 두르기와 한번씩 걸러 하는 경우와, 연속하여 하는 경우가 있음.



⑤세 동무 뛰기 달음질

세 사람의 몸이 그림과 같이 꼭 붙어 떨어지지 않게 하여 뜀.

⑥기어나가 공 보내기

거꿀 두르기의 줄 틀으로 공을 쥐고 뛸리 기어나가 (기어나가지 못하면 한번 뛰어 넘어도 좋음.)곧 뛰들아 보내서 다음 사람에게 공을 보내 줌. 그리나 그 때 공이 두르는 줄을 먼저서는 안됨.

⑦잎사귀 줍기

줄을 넘으면서 땅바닥의 잎사귀나 혹은 마분지조각을 주워 집음. 집어 가지고 완전히 뛰어 나갈때까지 줄에 걸리지 아니하여야 함.

소 녀 소 설

새로운 길

글박 인해 그림 김 의환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약100년 전 1848년 7월 19일 미국의 부인들을 위해서, 아니 나아가서는 전 세계 부인들을 위해서, 세계 최초로 "여자의 권리"를 주장한 미국의 에리자베쓰·스탄톤 부인의 어렸을적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소설로 고쳐 꾸민 것임을 말해 둡니다.

그 때 에리자는 네 살이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때 일을 잊지않고 더욱 똑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그 때 일이 에리자에게 있어서는, 난생 처음으로 당하는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었고, 너무도 자기 생각으로는 어려운 문제였던 까닭입니다.

그 날 에리자 어머니는 아기를 낳았읍니다. 에리자가 처음으로 언니가 되었던 날이었읍니다. 그날도 에리자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오따와 언니들 앞에 앉어서, 조용하게 재미 있는 옛날 얘기를 듣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호부 아주머니가 눈 같이 하얗고 커어다란 수건에 싼 아기를 안고, 어머니가 에리자 동생을 낳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왔읍니다. 방안에 함께 앉았던 어른들이,

"어디 어디?"

하면서 간호부 아주머니를 둘러싸고 아기를 구경하려고 하였읍니다. 에리자도 어른들 사이에서 빨리 빨리 동생을 보고 싶어서 발돋움을 하고 애를 썼읍니다. 그 때 어른들의 기운 없는 조그만 소리가 들려 왔읍니다.

"계집애로군. 쯧쯧 섭섭해라."

"아들을 낳았더라면……"

에리자는 이러한 어른들 말소리가 웬일인지 저도 모르게 자꾸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읍니다.

어째서 아기가 계집애라서 섭섭할까? 동생이 계집애라면 에리자 자기도 계집애가 아닌가?

아기는 토실 토실 살이 쪄서 첫눈에도 아주 귀엽게만 보였읍니다. 금방 고사리 같은 주먹을 오물오물 놀릴 것만 같았읍니다. "섭섭해라!"하고 어른들은 말하였지만, 아기는 조금도 그러한 빛은 없었읍니다. 아무리 보아도 귀엽고 예쁘게만 생긴 아기인데, 무엇 때문에 "계집애로군, 섭섭해라!" 하는 것일까?

그러나 에리자는 이러한 생각을 이내 잊어버렸읍니다. 에리자는 숨바꼭질이며, 오빠와 언니들과 함께 노는데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에리자가 제일 좋아하는 페라에게 달려가 재미있는 얘기도 들어야 하였읍니다. 페라는 검둥이 할아버지였읍니다. 에리자가 낳기 전부터 집에 있는 하인이었읍니다.

그 당시 아메리카에는 노예(종=하인)라는 것이 있어서, 검둥이는 인간으로 태나면서 부터, 짐승이나 마찬가지로 팔고 살 수 있었읍니다. 짐승이라면 그래도 주인 모르게 도망을 갈 수도 있었겠읍니다마는, 노예는 법률이라는 최사슬로 주인 집에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타는 그렇게 주인집에 꼭 매달려만 있어야 하는 노예는 아니었읍니다.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받고 있는 하인이었읍니다. 그래서 베타 할아버지는 어느 정도 말하자면 자유를 가지고 있는 몸이었읍니다. 그러나 에리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은 조금도 모릅니다. 그저 베타 할아버지가 재미있고 무서무시

한 얘기도 잘 들려주고 귀여워해주니까, 에리자는 누구보다 베타를 좋아 하였읍니다. 그래서 에리자는 베타와 함께 어디든지 따라갔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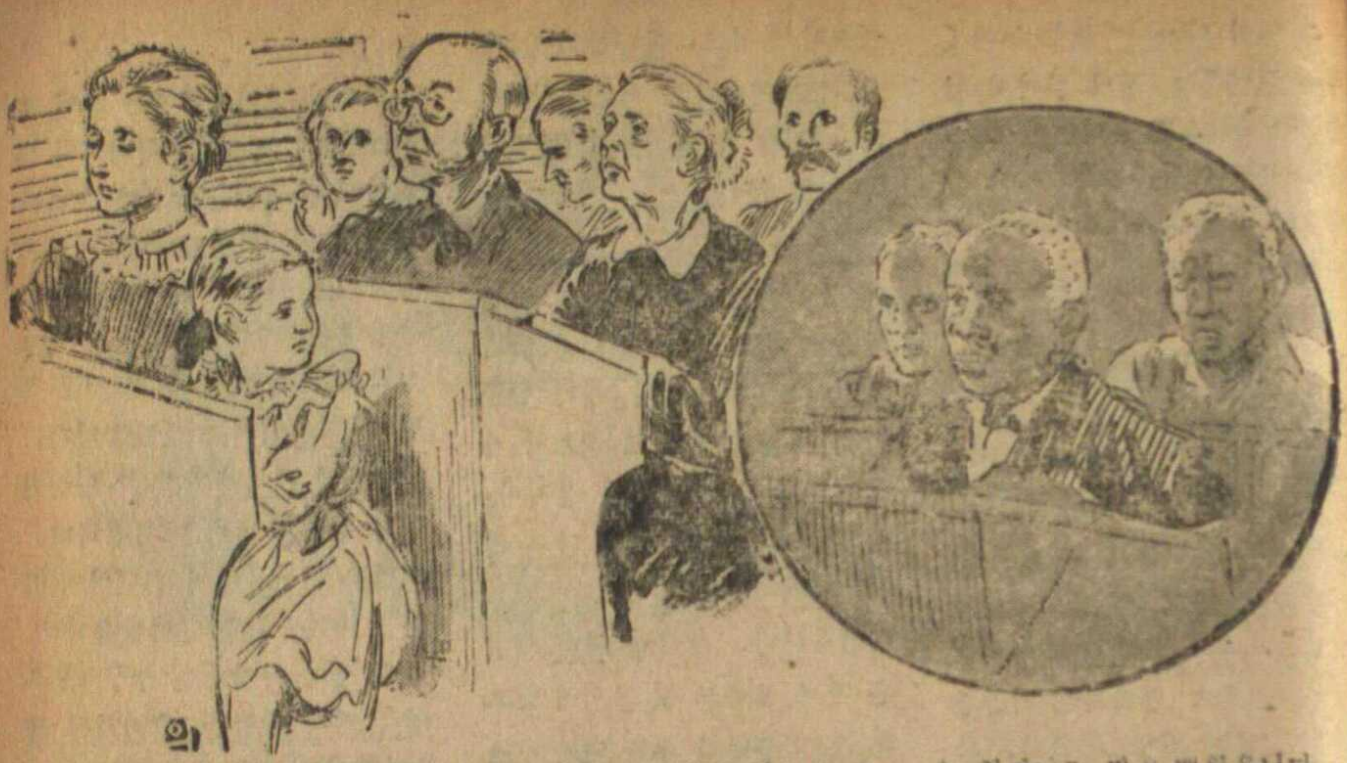
그렇지만 교회당에 갈 때는, 아무리 베타 할아버지와 함께 한자리에 앉고 싶어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었읍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들으러 왔어도, 베타는 흑인(黑人)이고 에리자는 백인(白人)이기 때문에 함께 한자리에 앉을 수 없었읍니다.

베타는 언제나 어둑컴컴한 제일 구석진 곳에 가서, 혼자 쓸쓸한 얼굴로 앉아 있었읍니다. 에리자는 목사님의 성경 말씀 같은 것은 귀 밖으로 흘으며, 자꾸만 베타가 앉은 쪽을 살피며, 똑같이 흑인들만 모여 앉은 데서 베타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애썼읍니다. 새까만 베타 얼굴은 자세 보아도 잘 보이지 않고 두 눈만 유난히 반작 반작 빛났읍니다. 이렇게 한참이나 에리자는 흑인들만 모여 있는 구석을 바라보다가, 곧잘 어른들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베타 앉은 곳으로 달려 갔읍니다. 그러면 언제나 베타는 눈을 크게 뜨고, 어쩌할 줄 몰라 걱정하는 얼굴이었읍니다. 그것은 베타만이 그런것이 아니고 교회당 안에 가득히 앉은 백인들도, 눈을 크게 뜨고 놀라는 것이었읍니다. 거기는 백인이 앉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곳은 살빛이 다른, 인간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사람들만 모여 앉는 곳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리자에게는 그런 것은 도무지 모르고,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으면 도리어 이상하기만 하였읍니다. 어째서 검둥이는 사람이 아니고,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천대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은 정말 에리자에게는 몰랐읍니다.

어느날 에리자에게는 이상한 일이 또 한 가지 생겼읍니다. 그것은 에리자에게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죽은 일이었읍니다. 물론 집안 사람들은 누구 한 사람 오빠의 죽엄을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읍니다마는, 더욱 아버지의 슬픔은 누구보다도 컸읍니다. 하나밖에 없던 아들을 잃었으니 두리도 아니시겠지만, 아버지는 아주 기운까지 잃으시고, 인제는 웃음까지 잊어버리시지 않았나하고 생각이 들기까지 하였읍니다.

오빠가 죽은 뒤 며칠 동안, 아버지는 음식조차 입에 대시지 않고 멍하니 의자에 앉아, 담배



만 괴우시고, 천장을 바라보시기만 하였읍니다. 그리고 또 땅이 꺼질 듯이 긴 한숨도 쉬었읍니다. 에리자는 이러한 아버지 모양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가 이상하고 왜 그러시는지 도무지 궁금했읍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 등 뒤에 가만히 메달리며,

"아버지 또 오빠 생각하세요?"

"....."

"아버지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있지 않아요..."

하고 아버지 얼굴에 에리자는 자기 얼굴을 가져다 대었읍니다.

아버지는 한참이나 에리자의 얼굴을 바라 보시더니, 어윽고 긴 한숨을 쉬시며,

"에리자 네가 사내였더면 얼마나..."

이렇게 말 끝을 못맺고, 또 아버지 머리는 힘없이 앞으로 숙여졌읍니다.

에리자는 아버지의 하신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었읍니다. 웬일인지 아버지가 자꾸자꾸 불쌍하게 보이고, 어떠한 일이라도 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해 드리고만 싶은, 아니 도무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은는지 모르는 그러한 마음이, 가슴 가득히 끓어 오르기만 하였읍니다. 마침내 에리자는 눈물어린 얼굴을 아버지 가슴에 파묻고, 울음 섞인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읍니다.

"아버지, 나 오빠처럼 꼭 될테야, 오빠처럼 꼭..."

× ×

그날 밤 에리자는 밤이 깊도록 혼자서 곰곰히 생각하였읍니다. 어떻게 하면 오빠처럼 될 수 있을까? 먼저 생각나는 것은—오빠는 언니들이 배우지 않는 희랍나라 말을 배웠읍니다. 그렇다, 이것을 배우면 오빠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은 또 오빠는 말타는 것을 배웠읍니다. 그렇지, 말을 타면 되겠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상 오빠는 언니들과 자기보다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았읍니다.

이튿날부터 에리자는 그야말로 먹는 것 자는 것까지 잊고 열심으로 공부를 하였읍니다. 학교는 물론이지만, 저 혼자 교회당에 가서 목사님에게 어렵고 어려운 희랍나라 말까지 배우기 시작하였읍니다. 또 마굿간에서 말을 끌어내다가, 떨어지면 또 올라 타고, 올라 탔다가는 또 떨어지고 하면서, 에리자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열심으로 말달리기를 배웠읍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또 용감하게 에리자가 오빠처럼 되겠다는 새로운 결심도 굳게 배일 같이 남

모르게 싸웠으나, 아버지는 조금도 에리자의 그런 마음을 몰라 주시는 모양이었읍니다.

"그만하면 에리자 너도 네 오빠와 똑 같다."

"인제는 너도 남자 같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는,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고 에리자는 초바심치는 마음을 누르면서 기다렸지만, 역시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읍니다. 어느날 학교에서 상을 받던 날 에리자는 상장과 상품을 안고 집으로 뛰어오면서 "이번이야 꼭..." 하고 아버지의 칭찬하실 것을 생각하였읍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자 한걸음에 아버지 앞으로 뛰어가 상품을 보였읍니다.

그 때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겠읍니까?

"에리자! 네가 사내로 태났더라면 얼마나..."

이렇게 말하시고는, 또 아버지는 죽은 오빠를 생각하시는 듯, 어두운 얼굴을 하시며 눈을 감았읍니다.

왜?

정말 에리자에게는, 왜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시는지 모를 일이었읍니다. 에리자는 지금까지 사내로 태났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한 적은 한번도 없었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했고, 어째서 사내로 태나야만 좋은까?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은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이고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을텐데...대체 여자는 어째서 나쁜 것인가?

겨집애, 사내, 말, 아들.

에리자는 또다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 때 학교가 일찍 파하는 날은, 에리자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재판관을 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들러서 놀다가,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에리자가 아버지 방을 찾아갈 때마다, 이따금 낯모르는 여자가 아버지 앞에서 울며 무엇인지 애걸하는 모양을 어렴풋 볼 수 있었읍니다. 그것이 에리자에게 있어서는 또 한 가지 새로운 의심이 되었읍니다.

왜 여자는 재판소에 와서 울어야 할까?..... 에리자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처럼 어려운 일이기만 하였읍니다. 다음순간 에리자는 벌써 잊어버린 옛날 일이지만, 동생이 낳던날 어떤 부인이

"계집애로군, 섭섭해라..."

하던 말이 문득 의심스럽게 생각났읍니다. (계집애... 여자란 커지면 저렇게 울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 무엇 때문일까?)

에리자는 희랍나라 말도 수학도 말 달리기도 모두 남자에게 져지 않는데, 그러면 자기도 커서는 울지 않으면 안될 것일까?

에리자는 어느날 아버지 밑에서 사무를 보는 젊은 서기 아저씨에게, 지금까지 궁금하게 여겨오던 일을 모조리 물어 보았읍니다.

"아저씨! 나는 암만 생각해도 남자와 여자가 틀리는 점을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듣고 서기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면서, 벌알간 책장에 가득 있는 두꺼운 책들 가운데에서 한권을 꺼내 에리자에게 보여 주었읍니

다. 서기 아저씨가 보여준 책 페이지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읍니다.

—흑인, 천치, 미친 사람과 여자를 빼놓고, 모든 아메리카 인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아저씨 이게 무엇예요?"

에리쟈는 이렇게 물지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게 법률이란다."

"법률? 법률이 뭐예요?"

"즉 쉽게 말하면 나라의 규칙이란 말이다. 너희들이 학교에서 지키는 규칙이 있듯이, 나라에도 국민들이 지킬 규칙 즉 법률이 있는 것이란다."

서기 아저씨는 몇번이나 책을 이리 펴고 저리 보이며, 에리쟈에게 "미친 사람과 여자"이런 데라든가, "여자를 빼놓고는" 이런데를 여러곳 읽어 주었읍니다. 그러나 에리쟈에게는 그 소리조차 듣기 싫었고, 또 자기가 읽어 본대야 무슨 말을 써 놨는지,"정치에 참여할 수 없음."이란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에리쟈에게는 도무지 모를 일이기만 하였읍니다.

그러나 모두 이상하고 궁금한 말만 같았지만, "흑인, 미친 사람과 여자"이런 말을 써 논데는 에리쟈도 저도 모르게 분통이 끓어 올랐읍니다.

"대체 누가 그렇게 제맘대로 규칙을 만들어 놓았을까? 남자들이 만들었을테지, 그럼 아니지 같은 사람들이 만들은 것에 틀림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자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그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에리쟈는 꼭 이렇게만 생각하였읍니다.

"옳지 두고보자. 언제든지 그 책을 찢어버리고 말테니…"

에리쟈에게는 새로운 결심 하나가 생겼읍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그저 아버지에게 놀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뒤부터는 자기의 결심한 바를 어떻게 하면 될 수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찾아가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회를 엿보러 찾아 갔읍니다. 아무도 없을 때는 몰래 법률책을 꺼내서 한 권 두 권"흑인, 천치, 미친 사람과 여자…" 이런 말이 씌어 있는 페이지를 표해놓고 돌아오곤 하였읍니다.

"아버지가 시골로 볼 일을 보러 가시면 꼭 그 책들을 찢어 버릴테다!"

그러나 이러한 에리쟈의 계획은 조금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었을텐데, 분하게도 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읍니다.

"난 네가 자주 오기에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이런 장난을 하러 왔었구나. 하하하! 아무리 네가 책을 찢어 버린대도 이런 말이 씌여 있는 책이 어디 여기만 있는 것이냐……이런 말이 마음에 맞지 않거던 네가 자라서 연설을 해가지고 법률을 고치도록 해보렴. 새 법률이 생기면 옛날 것은 자연 없어질테니…"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면서 에리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읍니다.

이 때 에리쟈는 말없이 말밑을 바라보면서, 꼭 입술을 깨물고 있었읍니다. 마음 속으로는 벌써 몇 해 전, 울며 아버지 앞에서 외치 듯 말한 것을 되풀이 하고 있었읍니다.

"아버지,나 꼭 오빠처럼 똑같은 사내가 될테야……"

그리고 눈 앞에는 그 때 오빠처럼 되겠다고 열심으로 애쓰던 가지 가지 일들이 활동사진처럼 떠 올랐읍니다.

다음 순간 에리쟈 가슴 속에는, 어서 어서 커서는, 기어이 여자도 남자같이 되도록 연설을 해서 법률(法律)을 고쳐보리라 하는, 새로운 결심을 굳게굳게 하는 것이었읍니다. —끝—

(46페이지에서 "모오구리"계속)

들이 무리에 끼울 수 있는 권리가 있나 없나에 대하여 의논이 일어날 때에는, 그 아이는 적어도 부모 이외의 두 득대에게 변호를 받지 않아서는 안되는 것이었읍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누가 변호할 텐가?"

아케타가 말하였읍니다.

"자유로운 백성 가운데 누가 변호를 할 텐가?"

대답이 없었읍니다.그러자 어미 득대는 만일 일이 뜻과 같지 않게 된다면 죽기로써 싸울 뿐이라고 단단히 차리고 있었읍니다. (계속)

그림·김 기 창

척척 박사

(문) 척척 박사 할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읍니까? 기쁨의 새학기를 맞이하였읍니다. 이번 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꼼짝도 못하게 할아버질 골려드려야겠읍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던지 언제나 소리없이 빵끗빵끗 웃는게, 무엇입니까?
(서울 돈암교 5의2 변철덕)

(답) 골린다던 문제가 어째 이때위야, 꽃이 곱게 피었군 그대. (척척 박사)

(문) 눈 좋은 사람에게는 잘 안보이고, 눈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신통하게 잘 보입니다. 척척 박사는 아마 잘 보일걸요. 쉬웁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서울 종로 5가 125의2 고기덕)

(답) 아니 여보게 정신좀 차리게. 어째 아지도 못하고 내 눈을 공연히 나쁘다 하나? 돗수 있는 안경. (척척 박사)

(문) 척척 박사, 아주 바빠서 인사도 못드리겠읍니다만, 한 가지 묻지요. 낳긴 오늘 낳는데, 생일은 내일인 것은?
(서울 숭례교 6의2 이봉림)

(답) 아히—문제가 모두 싱거워 하품만나네. 신문일세. (척척 박사)

(문) 박사 영감님 안녕하셨읍니까? 제가 처음으로 한 가지 묻겠으니 대답하세요. 에헴 정신차리세요. 백발 노승이 송낙을 벗어 송지에 걸고, 부지거처로 달아나는게 무엇입니까? 왜 우물쭈물 하세요. 빨리좀 대답하십시오. (서울 방산교 4의1 정 수철)

(답) 허허 고것참 야릇한 질문인데… 그렇지만 나만은 어림없지. 그것은 말이지 도토릴세. 도토리. (척척 박사)

(문) 가을이 돼서 문젤 잘 푸시겠읍니다. 그렇지만 이문제는 따겁습니다. 그러니 주의하여 대답하세요. 많이 주면 쫓겨가고, 조금주면 쫓아오는 것은 무엇인지? 떨지마시고 대답하세요.
(서울 돈암교 4의1 이상익)

(답) 물건을 다는 손저울아닌가? (척척박사)

(문) 불은 불인데 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전 신흥교 2의4 남택굴)

(답) 반딧불이 반짝반짝 하는게지. (척척 박사)

애독자 아협 상타기

★6월치 발표★

바른 대답과 뽑힌 분

① 글리엘모·마르코니라 하는 이탈리아 청년이 22세 때 발명하였다.
② 가죽.
③ 소설 "하얀쪽배" 가운데 있으며, 최의사가 말했다.

1등 10명

김 애하 (여수 서교 4년)
김 원화 (서울 혜화교 4년)
홍 관식 (서울 참청교 5년)
한 길수 (강화 양도교 3년)
문 인수 (충남 온양온천교 5년)
김 만호 (마산 회원교 5년)
이 상옥 (서울 소의교 5년)
박 룡길 (서울 광희교 4년)
최 후랑 (서울 공덕교 5년)
이 영하 (서울 창신교 5년)

2등 40명

최 계성 (서울 미동교 2년)
강 대창 (서울 영희교 5년)
김 영희 (서울 참광교 4년)
변 영자 (서울 효창교 4년)
이 정자 (가평 미원교 5년)
현 용태 (대전 참성교 4년)
박 윤용 (남원 운봉교 4년)
강 국희 (서울 북성교 5년)
김 명련 (서울 남산교 5년)
송 규자 (서울 남정교 4년)
박 명수 (조선 저축은행 후생부)
현 성진 (서울 매동교 3년)
정 인화 (여주 강천교 6년)
심 정순 (강화 선원교 4년)
이 옥란 (인천 박문교 5년)
소 춘 (전남 진도교 4년)
홍 성원 (서울 노량진교 5년)
윤 철 (서울 용강교 4년)
권 해안 (서울 아현교 5년)
윤 창영 (서울 종암교 4년)
김 여천 (서울 사법부속교 5년)
김 충식 (서울 효제교 3년)
김 경식 (서울 병산교 4년)
김 정수 (서울 덕수교 5년)
심 종근 (서울 창경교 3년)
박 소영 (서울 돈암교 5년)
김 정현 (서울 교동교 3년)
윤 한주 (인천 송의교 4년)
최 대경 (서울 수송교 5년)
차 병윤 (서울 용산교 5년)
안 병일 (수원 신풍교 2년)
오 귀성 (전남 나주교 5년)
손 광식 (서울 청계교 5년)
서 순분 (마산 회원교 5년)
이 연식 (서울 청파교 5년)
전 중호 (서울 당산교 3년)
장 영록 (서울 청운교 5년)
전 영구 (서울 재동교 4년)
김 노경 (서울 체한교 3년)
이 명주 (광주 대성교 4년)

씨동이

★저는 씨동이 올시다. 새학기가 돼서 새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소학생" 편집실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하나 적어 두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일입니다. 방학 동안에는 더웁고 심심해서 드이 났읍니다.

★우리 "소학생"을 다달이 만들어 주시던 박 현서 선생님이 8월 10일에 그만 두셨읍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그만두셨는데, 몸만 건강해지시면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셨읍니다. 제가 제일 귀염을 받았는데, 여간 섭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같이 빨리 건강해지기를 빕시다.

★지난 번 제4회 아협 현상 작품에서 동요에 특등 당선하여 상장과 상품과 상금 5,000원을 탄 차 충경군은 상금 전부를 국군 위문금으로 지난 8월 9일 국방부에 헌금하였답니다. (씨동이)

소학생 구락부

▲언제나 우리들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아협 선생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도 노랗고 하얀 무 배추 꽃이 피었읍니까? 이번에 저희들 작문 "세금과 어머니" 동요 "연자방아"가 입선 된 것은 정말 꿈 같습니다. 더욱이 많은 상금과 상품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 하옵니다. 우리들은 이 기쁨을 언제나 가슴 속에 지니고 열심으로 공부하여, 여러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코자 훌륭한 사람 될 것을 맹서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경기도 연백 홍현 국민교 5년 조 숙녀. 4년 채 남순올림)

△더욱 노력하셔서, 내년에도 또 훌륭한 작품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기자)

▲여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집에서는, 동생들이 "소학생"의 척척 박사와 깔깔 박사를 연구하느라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소학생" 6월치 6 페이지에 "인위의 말씀"이라 쓰였는데, 이것은 위인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닐까요? (서울 종로 5가 125의2 고 기덕)

△고군이 생각하신대로, 그것은 "위인의 말씀"이 옳습니다. (기자)

▲나는 중학생입니다. "소학생 구락부" 여러분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도 가고 선선한 가을과 함께 희망에 넘치는 새학기는 왔읍니다. 졸업한 사람은 중학교로, 다른 동무는 모두 한 학년씩 올라가 얼마나 기쁘신지? 동무들께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지금부터 나도 같은 구락부원으로 사귀어 주십시오. 그리고 편집하시는 기자 선생님, 중학생인 제가 어떻게 "소학생"을 알게 됐나 하면, 67호를 읽고 내용이 유익하고 재미있어, 중학생이면 어떠냐 하고 잡담제하고 애독자가 되었읍니다. 많은 작품은 후일로 미루고, 이만 그치오니 잘 지도해 주십시오. 구락부 동무들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전남 여수 수산 중학교 2년 황 치현)

▲기자 선생님 안녕들 하십니까? 그런데 척척 박사 할아버지께서 대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 청계교 4의1 임 공식)

△동무는 그게 걱정입니까? 척척박사 할아버진 대답 못하는 것이 없읍니다. (기자)

만들고 나서

★여름방학 동안에는 얼마나 재미있게들 지내셨읍니까? 올여름에는 비가 적게 오고 무척 더웠는데, 그렇다고 집 구석이나 나무 그늘만 찾아 다닌 분은 없었겠지요. 이제부터 또 힘껏 공부하십시다.

★약속대로 연재 소설 정 인택 선생님의 "이름 없는 별들" 이원표 선생님의 "김 구 선생", 작은 돌 선생님의 "모오구리"를 이 달치부터 싣게 되었읍니다. 그러고 표지 2면에는 꽃밭에 물을 주시는 화가 정 현웅 선생님의 사진과 글을 실었으며, 다음달치에는 잇달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으니 기다리십시오.

★내가 또 "소학생"을 맡아보게 되었읍니다. 여러분의 힘을 빌어 "소학생"을 키워나갈까 하니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 은정)

4232年 9月 1日發行

소학생 · 값 100 원

9월치★제70호

編輯兼發行人 尹 石 重

發行所 兒 協

4230年 9月 30日 登錄

서울 鍾路 2街 82

總販賣 乙酉文化社

서울 鍾路 2街 82

振替 서울 2706

電話 3970 0187 2492 3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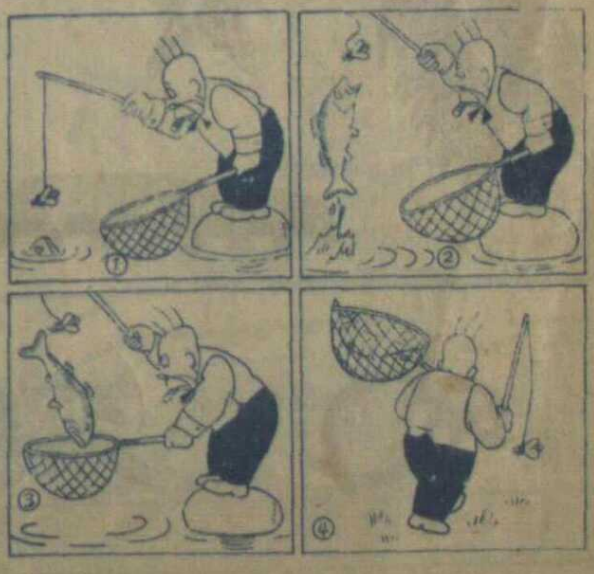
서울신문社 印刷局

★ 許可 番號 第186號 ★ 許可 日字 4278年 7月 5日 ★ 第3種 郵便物 認可 日字 4278年 4月 22日 ★

"소학생"으로 공부하는 농아협회 학생들

44페지의기사를 읽으십시요

★아담손 합아버지★



예전 동물의 시대와 연대

24 페이지를 읽으십시요

원시인 네안다루인 인류(人類) 시대

5000만년전

맘모스 시대

1억 5000만년전

배이리 짐승 시대

석탄(石炭) 시대

2억 5000만년전

물 고기 시대

삼엽충(三葉虫) 시대

원생 생물 (原生生物) 시대

시원대 (始原代)